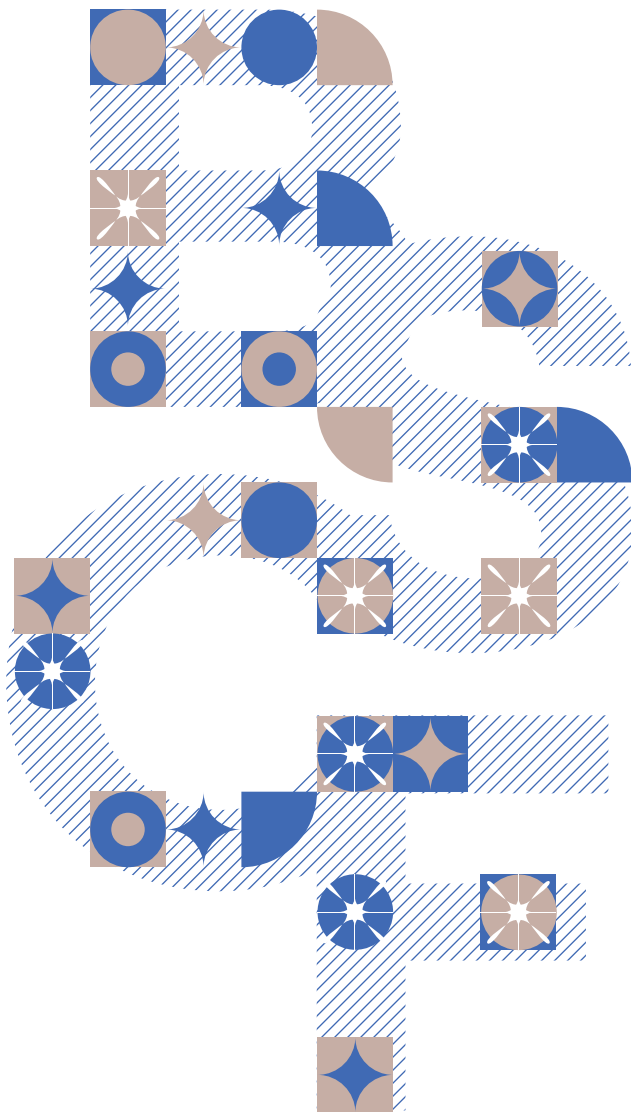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연구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연구

책임연구	원 향 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공동연구	이 소 민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FGI 수행	문화와 예술 다다





목차

I	연구개요	0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014
	2. 연구 방법	019
II	새로운 예술창작공간 유형 탐색	021
	1. 예술창작공간 관련 선행 연구	022
	2. 예술창작공간의 유형별 동향	027
III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현재	067
	1.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현황	068
	2.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관련 의견 수렴	072
	3. 조사 결과 종합	085
IV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제안	091
	1. 문제의식 및 주요 개선 방향	092
	2.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제안	098
V	결론	121
	참고문헌	125
	부록	129

표목차

[표 1]	[2022~2023 공연예술, 문학, 시각예술 활성화 기초 전략 수립 연구] 중 창작공간 관련 의견	017
[표 2]	예술창작공간 관련 주요 선행 연구	022
[표 3]	국내외 예술창작공간의 유형별 사례 분류	028
[표 4]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현황	068
[표 5]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례 제정 현황	070
[표 6]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제언 개요	099
[표 7]	유형별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운영 프로그램 예시	101

그림목차

[그림 1]	<2024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중 예술인 역점 정책 전체 조사 결과	016
[그림 2]	<2024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중 예술활동에 필요한 창작공간 지원정책	016
[그림 3]	가나아뜰리에	020
[그림 4]	인천아트플랫폼	020
[그림 5]	양주777레지던시	020
[그림 6]	수영구도서관 상주작가 면담	020
[그림 7]	(좌)수오멘리나 섬 레지던시 내부 / (우)케이블 팩토리 레지던시 내부	035
[그림 8]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오픈콜 포스터	036
[그림 9]	(좌)파브리카 정문 / (우)도서관 전경	038
[그림 10]	(좌)사리 레지던시 전경 / (우)사리 레지던시 내부	039
[그림 11]	PACA 레지던시 예술가 워크숍	040
[그림 12]	코브 파크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젝트	042
[그림 13]	(좌)대규모 물입형 예술작품 HALO / (우)고광도 대형 강입자 충돌 실험하는 예술가	043
[그림 14]	레글로 도서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자 인터뷰	045
[그림 15]	(좌)970 West Studio 홍보 이미지 / (우)970 West Studio 내부	046
[그림 16]	(좌)빅토리아 아카이브 센터 전경 / (우)2024년 입주작가 전시 전경	047
[그림 17]	(좌)WestWerk 전경 / (우)WestWerk 내부	049
[그림 18]	(좌)도서관 내부 / (우)입주 작가	050
[그림 19]	(좌)서정아 상주작가 인터뷰 / (우)수영구도서관 전경	051
[그림 20]	NPS, Residency Programs Across the National Park System	053
[그림 21]	(좌)The narrows art retreat 전경 / (우)개인 창작공간 내부	054
[그림 22]	프로젝트 아이나 활동사진	055
[그림 23]	(좌)라 메종 드 보몽 전경 / (우)발코니	056
[그림 24]	몽골예술위원회 및 ARKO 몽골 노마딕 예술가 레지던스	057
[그림 25]	(좌)SomoS 가상 예술가 레지던시 오픈콜 / (우)그룹 화상 회의	058

[그림 26]	(좌)르 생카트르 파리 전경 / (우)르 생카트르 파리 내부	061
[그림 27]	워터셰드 전경 및 내부	062
[그림 28]	(좌)Yetti Frenkel의 Mystic River Watershed 벽화 / (우)환경 정의 보트 투어	063
[그림 29]	(좌)타임스퀘어 PAIR 프로그램 / (우)뉴욕시청 앞 The launch of the CycleNews project	065
[그림 30]	(좌)청소년 및 가족 센터와의 협업 프로그램 전경 / (우)청소년 이용 모습	066
[그림 31]	1차, 2차, 3차, 4차, 6차, 7차 FGI 진행 현장	073
[그림 32]	(좌)가나 장흥 아틀리에 외부 / (우)가나 장흥 아틀리에 내부	076
[그림 33]	아이오와 국제창작센터 외관과 워크숍 장면	087
[그림 34]	덴마크 HAUT 예술극장의 다양한 실험과 공연 장면	089
[그림 35]	2024 부산예술인실태조사 중 예술활동 시 사용 공간의 형태	094
[그림 36]	2024 부산예술인실태조사 중 예술활동에 필요한 창작공간 지원정책	094
[그림 37]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개요	099
[그림 38]	아트코리아랩 내 쇼룸 및 시연장	104
[그림 39]	서울예술인지원센터 - (좌)건물외관 / (우)2층 공유오피스	106
[그림 40]	소설가의 방	107
[그림 41]	테마소설집 발간 북콘서트	107
[그림 42]	리우 뽀블릭 전경	108
[그림 43]	야외 작업공간	108
[그림 44]	장도 스튜디오 전경	110
[그림 45]	장도 스튜디오 작업실	110
[그림 46]	빌라 쿠조야마 전경	111
[그림 47]	빌라 쿠조야마 프로그램	111
[그림 48]	팔복예술공장 전경	113
[그림 45]	인천아트 플랫폼 전경	113



I.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I.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14년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향유 및 창작활동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¹⁾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자유로운 예술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문화예술 진흥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의제가 되었다. 또한 예술인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²⁾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책임이 되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예술창작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공간을 넘어, 예술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는 핵심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예술창작공간은 수월성 있는 작품 창작산실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필요조건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지난 2023년 발표된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예술인 생활·창작공간 다변화 지원'을 추진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실천과제로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개관, 예술활동 및 비즈니스 종합지원플랫폼으로서의 아트코리아랩 운영, 해외레지던스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창작 뿐만 아니라 유통, 창업 등의 기능을 부가함과 동시에 창작공간 이용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들을 배려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창작공간과 관련된 정책들이 예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면서, 예술창작공간은 예술인 복지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1)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예술창작공간이 가지는 기능과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창작공간’을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³⁾로 정의하고 있다. 즉,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기본적 기능으로 하되, 다중 이용과 발표기능까지 겸비된 공간을 지칭하고 있다.

그간 예술창작공간은 특정 기간 동안 입주하여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예술창작공간이 예술인 복지 영역에서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하면서, 예술인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측면도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예술창작공간 정책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을 수행하기 위한 ‘일상적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과,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작업자들과 어울리며 창작활동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하여 특정기간 입주하는 ‘레지던시형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 둘 다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레지던시 중심의 예술창작공간 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정적 용도의 예술창작공간보다는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운영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4년 시행된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예술인과 관련된 역점 정책으로 ‘예술창작지원사업 확대’에 이어 ‘예술인 작업환경 개선’이 2순위로 도출되었다.^{[그림 1] 참고} 또한 예술활동에 필요한 창작공간 지원정책으로는 ‘민간 창작공간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그림 2] 참고}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부산지역 예술인 정책에서 예술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작업환경 개선 정책을 실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창작공간 지원 정책도 공공이 조성 운영하는 예술창작공간의 확충 뿐만 아니라 민간 창작공간에 대한 운영비 지원, 공동 창작공간 및 공유 오피스 확대 등 다각도의 개선 전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지난 2020년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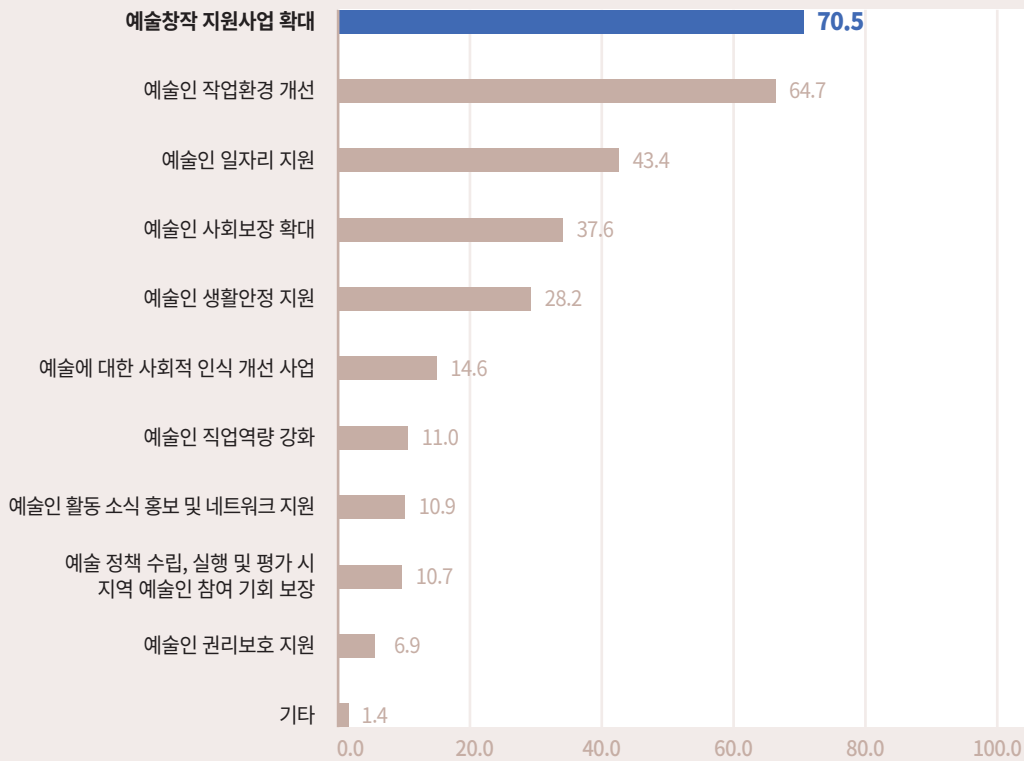
2)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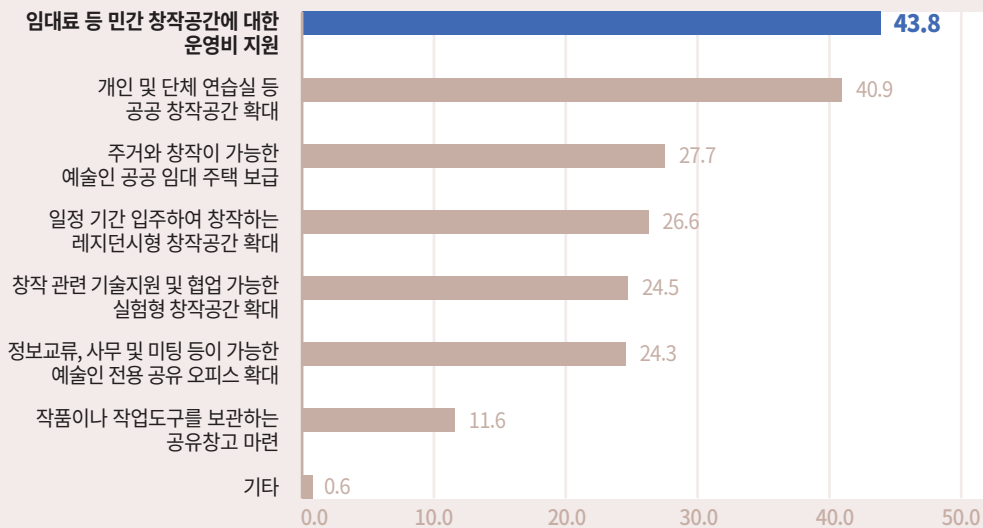
②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당연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그림 1] <2024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중 예술인 역점 정책 전체 조사 결과 (단위:%)



[그림 2] <2024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중 예술활동에 필요한 창작공간 지원정책 (단위:%)



구」를 수행하면서, 부산지역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 및 민간 예술창작공간의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내역을 분석하였다. 또한 창작공간 입주작가 및 운영자 등 관계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술창작공간의 주요 기능, 프로그램, 기대효과, 운영주체, 지원정책 제언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술창작공간과 레지던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예술창작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각 공간별로 특성화된 목표 수립, 예술창작공간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 예술창작공간 지원 행정체계 개선, 새로운 형태의 예술창작공간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도출한 바 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예술활동 분야별 지원사업 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하여 공연예술, 문학, 시각예술 관련 지원사업 체계 개선을 위한 예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술창작공간과 관련하여 도출된 주요 의견들은 다음과 같았다.

[표 1] [2022~2023 공연예술, 문학, 시각예술 활성화 기초 전략 수립 연구] 중 창작공간 관련 의견

- 창작공간에서는 창작집중 기능 외에도 네트워크 기능이 필요함
- 외부 지역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창작공간 필요
- 공동작업 및 기계 사용이 가능하도록 테크니션이 상주하는 공동작업실형 공간 조성 요구
- 호텔 레지던시(문학), 도서관 상주작가(문학) 등 기존의 장소들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창작공간 조성 필요
- 민간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료 지원 등의 정책 수립 필요

당시 면담 조사 참가자들은 창작공간에서 집중 창작 외에도 네트워크 및 교류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류의 장으로서의 창작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창작공간의 형태에 대해서도 공동 작업실이나 호텔 레지던시처럼 기존의 창작공간과 다른 형태의 공간 조성 및 활용에 대해 의견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민간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부산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공공예술창작공간은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용 창작공간인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와 장애·비장애 작가들이 함께 입주하는 <창작공간 두구>가 있다. 공공 영역에서 창작공간이 꾸준히 확충되고 있음에도 지역 예술인의 숫자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창작활동의 변화 양상을 반영한 유연한 형태의 창작공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형태의 예술창작공간 확충에 대한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하기에 앞서, 부산지역의 전반적인 창작공간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체계적인 구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전환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예술창작공간들은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작가 지원(평론가 매칭, 입주작가 전시 지원 등)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오픈스튜디오, 원데이클래스 등)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예술창작활동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고, 예술창작공간이 집중적인 창작지원 외에도 예술가 간 네트워크, 지역사회 연계, 지역명소 활용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에 대한 요구들도 다양한데,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안정적인 예술창작공간을 희망하거나, 특정 지역에서의 낯선 경험을 통해 예술활동에 새로운 영감을 얻고자 하는 노마드형 레지던시 활동,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에 대한 수요 등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서 예술창작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경우들도 생겨나면서 예술창작 지원이라는 고유한 목적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보다는 복합문화공간의 기능 중 하나로 예술창작지원 기능이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예술창작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정책도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0년 수행한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 연구」에서 더 나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예술창작공간의 유형들을 도출하고, 부산지역에 필요한 예술창작공간의 형태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권을 보장하고, 특색있는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여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예술창작공간 관련 정책 환경 및 변화 유형 검토

한국의 예술창작공간 정책은 한국예술위원회의 해외 레지던시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폐교를 활용한 창작공간 조성의 과정을 거쳐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예술창작공간이 소위 지역 활성화의 대안으로 각광받으면서, 폐교, 폐공장 등 기능을 다한 공간을 예술창작공간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사업들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예술창작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시민 문화예술 향유 등 다양한 쓰임새를 요구받고 있다. 또한 개인 예술가의 작품창작 지원 외에도 네트워크, 리서치 등의 단계별 활동을 위한 창작공간이나, 예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 공간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외의 예술창작공간 중 새로운 형태의 예술창작공간의 유형들을 탐색하여, 최근 예술창작공간 정책의 변화 양상들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부산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술창작공간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능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예술창작공간에 대해 탐색했다. 이를 통해 부산지역에 필요한 예술창작공간 유형을 제안하여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다각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술창작공간의 목적별, 유형별 차별화 전략을 제안하면서 민간 예술창작공간 지원 및 예술창작공간 운영의 고도화 전략도 제안하였다.

2) 예술창작공간 관계자 및 예술인 대상 표적집단면담조사(FGI)

최근 예술인 복지정책 차원에서 예술창작공간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레지던시형 창작공간 외에 평소에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는 일상적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도출 또한 이번 연구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창작공간 입주 경험 외에도 평소의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지역 예술인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에 입주한 경험이 있거나,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예술인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표적집단면담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표적집단면담조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총 40명이고, 장르별로

살펴보면 시각예술 18명, 문화일반 및 다원예술 11명, 공연예술 9명, 문학 2명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질문은 창작공간의 참여 및 운영 경험, 부산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일상적 창작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과 레지던시형 창작공간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향후 장기적 차원에서의 창작공간의 기능 변화에 대해 물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예술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였다.

3) 타 지역 예술창작공간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예술창작공간의 새로운 유형 탐색을 위하여 운영방식의 변화를 꾀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타 지역의 주요 예술창작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경험 및 개선사항에 대한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공공 운영 창작공간 3곳, 민간 운영 창작공간 2곳을 방문하여 운영 프로그램, 작가 선발 및 지원방식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상주작가 사업에 참여하는 부산 수영구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을 활용한 작가 레지던시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3] 가나아뜰리에



[그림 4] 인천아트플랫폼



[그림 5] 양주777레지던시



[그림 6] 수영구도서관 상주작가 면담



II. 새로운 예술창작공간 유형 탐색

1. 예술창작공간 관련 선행 연구
2. 예술창작공간의 유형별 동향

II. 새로운 예술창작공간 유형 탐색

1. 예술창작공간 관련 선행 연구

예술창작공간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진행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 2] 예술창작공간 관련 주요 선행 연구

연구명	발간연도	연구주체	연구대상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20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국 창작스튜디오 124곳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발전방안 연구	2015	문화체육관광부	당인리발전소
예술가의 레지던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2018	신라희	레지던시 참여 예술가 대상
제주시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학술용역 보고서	2019	제주시	제주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일대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2020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경기창작센터 활성화 방안	2020	경기연구원	경기창작센터
아트 컬처랩 조성 기본연구	2021	문화체육관광부	아트컬처랩 구상 및 공간 모델링 조성 방안

(가칭)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기본계획	2021	양산시	(구)어곡초등학교
아트&테크 창제작지원센터 사례조사 및 적용방안 연구	2022	서울문화재단	기술 활용 창제작 지원센터 조성 방안
진천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	2022	진천군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일원
아시아예술융복합창작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후보지 4곳
예술인 복지 관점의 창작공간 지원 정책 연구	2023	양현미	예술인 복지 관점 창작공간 정책

최근 연구 동향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유휴공간의 창작공간으로의 전환 활용

1999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많은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한 창작공간 조성을 시작했다. 또한 2008년부터 서울시는 ‘컬처노믹스’ 정책으로 폐공간을 활용하여 생활친화형 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해 왔다. 현재까지도 많은 지자체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는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의 한 유형으로 ‘창작스튜디오’ 조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창작스튜디오의 개념 정립부터 현황 파악, 정책적 지원방안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창작공간이 문화시설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발전방안 연구」는 당인리발전소의 폐지 계획에 따라, 실험

적 예술의 창작과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적 예술문화 진흥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의 계획을 담고 있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의 핵심 주체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창작 시민(Creator-Citizen)⁴⁾으로까지 확대하여 상호 간에 공유와 협력, 변화와 혁신의 가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주변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해 문화예술창작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 계획까지 수립하였다.

제주시는 도시의 노후화와 공동화현상을 겪으면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을 위해 지난 6년 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제주시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학술용역 보고서」를 통해 예술인 창작공간 사업에 대한 입주 예술인과 지역주민들의 인식,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 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전반적인 개선방향 등을 마련하였다.

「(가칭)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기본계획」은 인근 산업단지 조성으로 환경오염 및 통학안전상의 이유로 이전하면서, 유휴공간이 된 (구)어곡초등학교를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창작공간 및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 역시 장소성 및 지역성에 기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유발 측면, 생산유발 측면, 고용유발측면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이처럼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유휴공간을 창작공간으로 전환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을 확인하였다.

포용성과 협력 증진의 창작공간

「경기창작센터 활성화 방안」은 레지던시의 역할과 기능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창작공간은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레지던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킬러 콘텐츠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동 및 협력 창작공간, 지역 사회 및 역사와 관련한 경기창작센터 정체성 확립, 글로벌 문화공간 등의 질적 제고 방안을 담았다. 나아가 입주작가 자립 지원 및 후속관리와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였다.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는 서울시 동남권 개발사업에 따라 국내 최초 및 유일한 장애예술인 전용 시각예술 레지던시가 이전

4) 창작시민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 다른 사람과의 협력적 관계 맺음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무엇을 창작/제작/생산하는 시민으로 정의

하게 되면서,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실험적 창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담고 있다. 기존 장애인 입주작가들의 인터뷰를 통한 리모델링 방안 및 전략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배경과 필요를 가진 예술가들이 함께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포용성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관련 창작연구

「아트 컬처랩 조성 기본연구」는 기술과 예술 융합 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제작공간, 시설 및 장비 등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아트컬처랩의 조성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단순 창작공간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결과물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며, 중간에 필요한 기술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트&테크 창제작지원센터 사례조사 및 적용방안 연구용역」은 아트&테크 창제작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사례조사를 통해 적용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서울 내에서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창제작 플랫폼 공간을 설립하여, 예술가의 창·제작과 나아가 창업까지 지원하며, 공간 내에서 인적 네트워킹, 창·제작 지원 관련 매니징 시스템 등의 도입에 대해 제안하였다.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집필공간, 숙박공간, 교육공간으로 구분하여, 창작자 뿐만 아니라 지역민, 학생들에게도 열려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전반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아시아예술융복합창작센터(가칭: 아시아문화예술교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역시 지역 문화예술인의 예술과 기술 융복합 관련 창제작 공간에 대한 지속적 요청에 따라, 아시아예술융복합창작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례조사와 실태조사, 전문가 대상 AHP조사,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여 창작센터의 효율적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 관련 창작공간을 조성해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상품화까지 지원하며, 관련

교육과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술창작공간 이용자 경험 및 예술인복지 관점의 창작공간 연구

예술창작공간과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논문을 보면 예술가의 레지던시 경험이나 예술인 복지 관점에서 창작공간에 대해 고찰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예술가의 레지던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에서는 창작공간의 경험을 보유한 예술가들이 레지던시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향후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레지던시에 참여했던 예술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레지던시 경험을 표면적 기능과 은폐된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면적 기능으로는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보장받으면서 하고 싶은 예술을 하고,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해 성장하며, 레지던시 연계 프로그램과 같은 예술 활동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지점을 도출하였다. 반면 은폐된 기능으로는 친밀하지 못하고 두려운 예술계 속에서 레지던시 경험이 심리적인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기반하여 레지던시 공간의 양적 확대, 지역사회 소통과 지역 이해도를 높이는 레지던시 운영, 예술가의 자율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장려하고 관료주의 예술행정의 완화를 위한 운영주체의 분산을 제안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 관점의 창작공간 지원 정책 연구」는 그간의 창작공간 지원정책에서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창작공간 지원은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창작공간을 레지던시형 창작공간과 작업실형 창작공간으로 구분하고 작업실형 창작공간에 대한 예술인들의 수요를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작업실형 창작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해외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공공 조성·운영 모델’, ‘민간 조성·운영 공공자금 지원 모델’, ‘공공 토지 지원, 민간 조성·운영 모델’, ‘민관공동조성, 민간 운영 모델’ 등 여러 형태로 작업실형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장에서 검토한 예술창작공간 관련 연구들은 특정 공간의 조성에서부터 공간의 포용적 활용 또는 콘텐츠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창작공간 등 다양한 목적의 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간 이용자의 시선에서의 예술창작공간의 기능을 분석하여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고, 예술인 복지 정책 관점에서의 작업실형 창작공간 정책에 대해서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예술창작공간은 이제 물리적 공간의 활용 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의 관점의 변화도 요구받고 있다.

2. 예술창작공간의 유형별 동향

새로운 예술창작공간 유형은 현대 예술계의 변화하는 요구와 다양한 사회적, 기술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단순히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창작의 방식과 환경, 프로그램 설계에서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몇 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첫째, 공간 활용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창작 공간이 도심 생활권 내에 위치하는지, 자연과 같은 고립된 환경에서 제공되는지, 혹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넘어 가상공간이나 국제적 협력 구조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진다. 이러한 공간 활용의 방식은 예술가가 접근할 수 있는 자원과 창작 환경을 크게 좌우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목적과 초점을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창작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특정 주제를 탐구하도록 기획된 레지던시, 협력과 교류를 강조하는 레지던시, 혹은 휴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리트리트형 공간 등은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나뉜다. 이러한 초점은 예술가들의 작업 방향성과 결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회적, 문화적 연계성을 강조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일부 레지던시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예술로의 확장을 시도하며, 다른 일부는 예술가 개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근에는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거나,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레지던시는 단순히 창작 공간 제공을 넘어, 공간과 프로그램, 지원 방식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경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표 3] 국내외 예술창작공간의 유형별 사례 분류

구분	기관 · 단체명	운영주체	주요특징	시사점
주 제 기 반 (7)	HIAP	HIAP (비영리 예술가 연합)	· 예술가 및 기획자 단체 운영 · 재정은 예술진흥센터 및 헬싱키 시 지원 · 레지던시 24시간 이용 및 숙박시설 제공	· 주제에 기반한 협업 기회 제공 · 사회적 변화와 이슈에 따른 주제 선정
	Cité	Fondation Cité internati- onale des arts	· Cité재단에서 운영 · 문화부, 외무부, 미술아카데미, 파리시 등의 지원 · 창작공간 이외에도 생계 수당, 교통비, 연구비 제공 · 300명 규모 운영에 따라 다양한 네트워킹 가능	· 주제에 따른 오픈콜 진행 · 주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상이함
	Fabrica	베네통 그룹	· 베네통 그룹에서 운영 · 만 권이 넘는 책을 보유한 도서관, 영화관, 실험실, 사진 스튜디오, 회의실 등 공동 작업실의 규모가 큼 · 25세 미만 작가들로 한정 · 학기별로 작가와 프로그램 디렉터를 섭외함	· 프로그램 디렉터가 선정된 작가에 맞게 주제를 선정,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커리큘럼 구성 · 동시대 주요 이슈를 다루는 창작활동으로 기존의 틀을 깨는 프로젝트 수행
	SAARI	코네 재단	· 민간 ‘코네 재단’에서 운영 · 재단 내에 문화다양성팀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생태 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월별 보조금 지급 및 숙박시설 제공 · 입주자 전체 피드백 회의 및 매주 화요일 단체 점심 식사	· 생태 이동 지원금 신청 가능(육로 이동 시) · 지속가능한 자재와 도구 사용 · 예술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결합해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예술가에게 강조 · 멘토링과 피드백 회의 등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 진행
	PACA	Virginia López (개인 예술가)	· 민간 주체 운영 · 개인 작업 공간과 주택, 공용 도서관, 오픈 스페이스, 정원 제공 · 입주 기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 지속가능한 생태적 창작 환경 제공 · 생태적 가치 반영한 작품 창작 지원

구분	기관 · 단체명	운영주체	주요특징	시사점
	Cove Park	Cove Park Trust (비영리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형 레지던시, 오픈 레지던시, 파트너십 레지던시로 구분 · 개인 작업 뿐만 아니라 주제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공간 외 예술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모델 제시 · 재단 및 외부 기관과의 지속적 협력
	유럽입자 물리연구소	CE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부터 예술과 과학 융합을 목적으로 운영 · 예술가들에게 CERN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과학자와의 협력 기회 제공 · 시각, 퍼포먼스,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과학 환경에서 예술 창작의 가능성 탐구
생활권 내 공간 활용 (6)	Legler Regional Library Artist in Residence Program	시카고 문화부 / 시카고 공립 도서관 공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커 랩과 사운드 스튜디오, 레지던시 공간을 도서관 내에 마련 · 활동비, 교통비, 재료비 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퇴근 개념으로 상주 필수 · 도서관 방문객 대상 참여형 미술 창작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 지역 사회 문화 발전 기여
	970 West Studio	메사 카운티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간 동안 활동 수당 제공 · 스튜디오 내에 사진 및 영상 장비, 공연 장비 등 대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최소 6시간 스튜디오 작업 필수 · 주민들에게 워크숍 프로그램 제공
	PROV	멜버른 아트 라이브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토리아주 기록물 보관소 (Public Record Office Victoria)에서 운영 · 창작공간 및 전문가 사례비 지급 · 2024년 운영이 첫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시, PROV 활용 및 관련성 반영 · 선정 작가는 내부 자료 액세스 가능 · 창작의 전 과정을 기록화
	West Werk	함부르크 문화 ·미디어부와 예술가센터 웨스트베르크 공동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부르크 도심에 위치한 스튜디오, 갤러리, 주거 공간을 갖춘 창작공간 ·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과 민간 예술기관의 공동 운영 사례 · 도심 내 레지던시로 예술과 도시의 연결성 증대

구분	기관 · 단체명	운영주체	주요특징	시사점
	의정부 미술도서관 ‘오픈 스튜디오’	의정부시	· 경기 북부 지역 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한 개인 창작공간 제공 · 결과보고 전시 및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 운영	· 신진 작가들에게 창작 기회 제공 · 미술 중심 도서관의 독특한 운영방식
	도서관 상주작가 프로그램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 문학작가에게 6개월 간 창작공간과 안정적 여건 제공 · 독서 프로그램, 글쓰기 클럽 등 지역 주민 참여 활동 운영	· 문학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화 발전 기여
리 트 리 트 형 (4)	Arts in the Parks	미국 내무부	· 미국 전역 50개 이상의 국립공원에서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의 자연과 역사적 환경에서 예술작업 가능 · 대개 주거 가능한 창작공간을 제공하나, 조건과 신청 방식은 공원별로 상이함	· 예술과 자연보존 중요성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
	The Narrows Arts Retreat	Erica Konrad (개인 예술가)	· 자연속에서 창작과 사색을 위한 생태공간 · 최대 50% 장학금 지원 제도 운영하고 있음	· 자연 환경에서 창작활동 지원 ·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에 장학금 제도를 통해 참여 기회 확대하고 있음
	Project Aaina	the Mirage Andretta(비영리 단체)	· 히말라야 산맥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에서 아트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 마음챙김을 결합한 체험을 통해 예술 치유 경험	· 예술과 휴식의 결합
	La Maison de Beaumont	La Maison de Beaumont (비영리 단체)	· 18세기 지어진 마을 주택을 개조하여 아름다운 지역 풍경과 함께 역사적 영감 불러일으킴 · 최대 12주까지 거주 가능하나, 규모에 따라 비용 부담	· 아름다운 환경 제공 ·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대

구분	기관 · 단체명	운영주체	주요특징	시사점
확장형 (3)	노마딕 예술가 레지던스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된 공간 없이 다양한 국가와 지역 이동하며 창작활동 · 예술가들에게 항공료, 체재비, 창작비 지원 	· 물리적 레지던시 개념 확장
	SomoS	SomoS Berlin(비영리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간 가상 레지던시 경험 제공 · 매주 그룹 화상 회의를 통해 포트폴리오 개발, 작품 비평, 멘토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창작 활동과 네트워킹 가능 · 시간과 재정적 부담으로 물리적인 레지던시 참여하기 어려운 예술가들에게 적합
	풍피두 센터 협력 레지던시	풍피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국제 예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레지던시 기획 · 창작비, 체류비 풍피두 지원하고, 지역 및 단체에서 공간 지원하는 방식 	· 지역적 맥락에서 창작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 기여
복합문화 예술공간 (2)	르 생카트르 파리	파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 장례식장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해 2008년 개관 · 18개의 전문 창작 스튜디오와 일반 창작공간 제공 	· 예술 창작과 시민 참여를 결합하여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장
	Watershed	Watersh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 인근 창고 리모델링하여 영화관, 창작공간, 디지털 미디어 아트 센터로 구분 · 영국의 보조금과 기부금 외에 영화 상영관 등의 자체 수익 구조를 마련 ·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위한 레지던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 인근 창고 리모델링으로 도시 재생의 모델이 됨 · 예술과 기술이 융복합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구분	기관 · 단체명	운영주체	주요특징	시사점
공공정책연계 (3)	미국 환경보호청 예술가 레지던스	미국 연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EPA와 국립예술기금회 협력으로 시작 · 물 관련 환경 문제 초점 · 미국 내 6개 주요 지역에서 주민과 협력하여 공공 예술 프로젝트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과 환경 문제 융합을 통한 창의적 해결책 제시 · 기후 회복력 강화와 지역 사회 참여 촉진 · 예술이 환경보호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사례
	Public Artist in Residence	뉴욕시 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시작된 공공예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술가를 시 정부 내에 배치 · 예술가와 시 정부가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창의적 접근 시도 · 연간 약 4만 달러 지원금과 작업공간, 프로젝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를 정책 및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한 사례 · 경찰서, 복지국 등 다양한 시청 부서에서 주민과의 관계 개선 및 정책 제안 활동 수행 · 공공과 예술계의 협력 모델
	Boston Artist in Residence	보스턴 예술 문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스턴 시의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여 15개월 간 프로젝트 진행 · 선정 작가에게 예술가 수당 및 프로젝트 비용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과 공공정책 결합을 통해 시민 참여와 창의적 문제 해결 촉진

1) 주제 기반 레지던시

전통적으로 창작공간만 제공하던 레지던시들이 점차 발전하여, 입주자 모집 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제 중심의 레지던시는 예술가들에게 특정 사회적, 환경적 이슈를 탐구하고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창작 활동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기후위기 속에서 예술계 역시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생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단순히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환경적 책임, 슬로우라이프, 공동체 정신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동시대의 긴급한 문제들을 예술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한다. 또한, 함께 입주한 작가들이 모여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협업을 통해 예술가들 간의 깊이 있는 교류와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 중심의 레지던시는 작품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예술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헬싱키 국제 예술가 프로그램(Helsinki International Artist Programme, Finland)⁵⁾

헬싱키 국제 예술가 프로그램(HIAP) 개요 및 운영 현황

헬싱키 국제 예술가 프로그램(HIAP)은 1998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주요 운영진은 아티스트와 큐레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는 핀란드 예술진흥센터(Arts Promotion Centre Finland)와 헬싱키 시 등으로부터 주요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HIAP은 헬싱키의 수오멘린나 섬(Suomenlinna island)과 케이블 팩토리에 위치해 있으며, 각 장소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오멘린나 섬의 레지던시는 커뮤니티 룸, 프로젝트 공간, 장비실, 목공 작업장 등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음향 및 영상 장비도 대여할 수 있다. 이 레지던시의 아파트는 작업 공간과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반면, 케이블 팩토리는 5헥타르가

5) 헬싱키 국제 예술가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www.hiap.fi/residency/>, 자료검색일 2024.9.2.)

넓은 넓은 바닥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헬싱키 내에서 가장 큰 문화 건물로, 라이브 및 워크 스튜디오가 있어 다양한 형태의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HIAP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3개월에서 최대 11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기획자의 경우 최대 2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오픈콜을 통해 이루어지며, 예술의 장르를 제한하지 않지만 주제를 중심으로 작업하는 예술가들을 선별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처럼 HIAP은 주제 중심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인데, 2018~2020년에는 ‘화석 이후의 전환(Post-Fossil Transition)’, 2021년에 ‘잘 가, 물고기들 고마웠어(So long, thanks agains for the fish)’,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 연대 레지던시 네트워크(Ukraine Solidarity Residencies Network)’ 등의 주요 협업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듯 주제는 당시의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단체에서 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IAP은 기후 변화와 생태계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의 비영리 단체인 머스타리드나(Mustaridna)와 협력하여, 화석 연료에 의존하던 삶의 방식을 벗어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탐구하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크라이나 연대 레지던시 네트워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은 우크라이나 거주 예술가 및 기획자들에게 작업공간 및 숙박시설을 제공하는데, 헬싱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국제 레지던시 단체들이 협력하여 운영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예술가들이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타 지역의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협력해 이러한 작업을 전 세계에 알리고, 더 넓은 관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시사점

HIAP의 운영 방식은 예술과 사회적, 환경적 이슈의 결합을 기반으로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주제와 협업

을 통해 예술가들이 현재의 긴급한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예술적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은 예술가들이 지역 사회와 글로벌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예술을 통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예술가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협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7] (좌)수오멘린나 섬 레지던시 내부 / (우)케이블 팩토리 레지던시 내부



© 헬싱키 국제 예술가 프로그램 홈페이지



국제 예술 도시(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⁶⁾

Cité 개요 및 운영 현황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Cité)는 1947년에 설립된 재단으로, 프랑스의 문화부, 외무부, 미술 아카데미, 파리시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 레지던시는 파리의 마레 지구와 몽마르트 두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약 300명 이상의 예술가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Cité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창작 공간 외에도 조각, 스크린 인쇄, 세라믹 작업이 가능한 공유 스튜디오, 콘서트와 컨퍼런스, 공연을 위한 강당, 7개의 방이 있는 전시장, 그리고 9개의 리허설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설들은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Cité 레지던시는 최대 1년간 예술가들이 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자는 135개의 국제 기관과 협력하여 선정하거나 오픈콜을 통해 선정된다. 특히, Cité는

6)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홈페이지(<https://www.citedesartsparis.net/en/residencies/staying-at-the-cit%C3%A9>, 자료검색일 2024.9.3.)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올해는 ‘카메라 리브르(Caméra libre)’라는 주제로 검열, 박해 또는 정치적 폭력에 직면한 외국 영화 제작자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엘르 앤 시테(Elles & Cité)’라는 주제로 10년 이상 활동한 프랑스의 중견 여성 사진작가를 위한 연구 레지던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예술가들은 3개월간 레지던시에 입주할 수 있으며, 창작 공간 외에도 월 2,000유로의 생계 수당, 1,500유로의 연구 및 제작 지원비, 교통비(집과 레지던시 간 왕복 교통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시사점

Cité의 운영 방식을 통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이슈에 대한 탐구와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예술가들이 단순히 개인적 창작 활동을 넘어,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예술적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예술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폭넓은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예술 커뮤니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한다.

[그림 8]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오픈콜 포스터



©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파브리카(Fabrika, Treviso, Italy)⁷⁾

파브리카 개요 및 운영 현황

7) 파브리카 홈페이지(<https://www.fabrika.it/en/our-spaces/>, 자료검색일 2024.9.4.)

파브리카(Fabrica)는 동시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로, 루치아노 베네통(Luciano Benetton)의 비전으로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베네통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센터는 17세기에 지어진 빌라 파스테가 마네라를 일본의 건축가 안도 타다오(Tadao Ando)가 일부 복원하여 지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파브리카에는 만 권이 넘는 책을 보유한 도서관, 영화관, 사진 스튜디오, 실험실,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의 다양한 시설이 있으며, 숙박시설은 트레비소 중심부에 위치하여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파브리카는 25세 미만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최대 6개월간 입주할 수 있다. 이 레지던시는 국적과 장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 작가들은 사진, 영상, 인터랙션 디자인, 글쓰기,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훈련과 연구를 수행한다. 프로그램 디렉터가 각 작가의 성향을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작가들이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큐레이팅한다. 2024년 1학기에는 ‘친족(Kinship)’이라는 주제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전문가 및 작가들과 협업하여 워크숍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2024년 가을-겨울 세션의 주제는 ‘농촌생활(Ruralism)’이다. 2023년 2학기에는 ‘공동 생태학’, 1학기에는 ‘고대주의-미래의 기원’ 등, 학기별로 다양한 주제에 따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사점

파브리카의 운영 방식은 “Learning by Doing” 방식을 채택하여 르네상스 공방을 모델로 하고 있다. 연령 제한 및 주제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젊은 작가들이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고, 틀을 깨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은 젊은 예술가들이 동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이슈를 다루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들이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또한, 학기별로 다양한 주제를 탐구함으로써, 예술가들이 깊이 있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표현 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파프리카 홈페이지



사리 레지던시(SAARI Residence, Finland)⁸⁾

사리 레지던시 개요 및 운영 현황

사리 레지던시는 핀란드 남서부 미나메키(Mynämäki)에 위치하며, 헬싱키에 본부를 둔 코네 재단(KONE Foundation)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재단 내에는 문화 다양성팀이 있어 레지던시 인근의 공원, 목초지, 숲의 생태 다양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레지던시 내에는 생태 도서관이 있어, 입주자들이 산림 문제,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동물 철학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레지던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며, 작업 공간 내에서도 가능한 지속가능한 자재와 도구를 사용하는 등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일상을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입주 대상은 모든 국적 그리고 전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열려 있다. 레지던시 입주 신청은 매년 3월에 받고 있으며, 최대 2개월 간 입주가 가능하다. 2개월 동안 월별 보조금(신진 예술가 월 2,700유로, 중견 예술가 월 3,200유로, 원로 예술가 월 3,800유로), 기본 숙박시설, 작업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핀란드 지역이 아닌 타 국가 예술가가 입주할 때, 생태 이동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항공 이동을 피하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지속 가능

8) 사리 레지던시 홈페이지 (<https://koneensaatio.fi/en/saari-residence/>, 자료검색일 2024.8.19.)

한 운송 수단을 사용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예술가는 멘토링을 통해 작품을 심화해 갈 수 있으며, 입주자 전체 피드백 회의, 화요일 단체 점심 식사 등의 입주조건이 있다.

시사점

사리는 예술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결합하여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다. 다양한 국적과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생태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예술 창작을 융합한다. 특히, 폐기물 재활용과 지속 가능한 자재 사용, 생태 이동 지원금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들이 생태적 책임을 지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접근은 예술가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창작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멘토링과 피드백 회의 등 공동체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창작의 깊이를 더한다.

[그림 10] (좌)사리 레지던시 전경 / (우)사리 레지던시 내부



© 사리 레지던시 홈페이지



PACA(Proyectos Artísticos Casa Antonino, Spain)⁹⁾

PACA 개요 및 운영 현황

2013년 설립된 PACA는 스페인 트루비아의 작은 시골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대미술과 환경적·생태적 접근 방식을 결합한 창작 공간이다. 농가를 개조한 공간으로 전통적인 농업 환경과 현대 예술이 결합된 독특한 장소다. 예술가들은 야외 공간과 정원, 전통 농업 도구 등을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생태적

9) PACA 홈페이지(<https://pacaproyectosartisticos.com/artistinresidence/artresidency-apply/>, 자료검색일 8.28)

가치를 탐구할 수 있다. 이렇듯 PACA는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작업을 지향하며,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세 가지 유형의 레지던시를 제공하는데, 예술인과 연구자를 위한 예술 레지던시, 자연과 환경에 관심있는 작가들을 위한 정원 레지던시, 특정 예술기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학습 레지던시이다. 입주한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과 주택을 제공하고, 공용 도서관, 오픈 스페이스, 정원 등을 제공한다. 입주는 2주에서 3개월까지 가능하고, 기간별 차등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신청은 연중 받는다.

시사점

PACA의 시사점은 생태적 창작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예술가들이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생태적 가치를 반영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다. 또한, 유연한 입주 프로그램과 보조금 제도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요구를 가진 예술가들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며, 전통 농업 도구와 야외 공간을 활용한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함으로써 예술과 생태의 융합을 탐구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점들은 예술가들에게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과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PACA 레지던시 예술가 워크숍



© 트랜스 아티스트 홈페이지

코브 파크(Cove Park, Scotland)¹⁰⁾

코브 파크 개요 및 운영 현황

비영리 단체 코브 파크 트러스트(Cove Park Trust)에서 스코틀랜드와 국제적인 예술가, 창작자, 연구자들을 위한 레지던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200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레지던시는 전문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창작 지원금, 여행 경비, 비자 발급 지원, 재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선정형 레지던시(Awarded residencies)와 자체적 재원을 통해 공공 기금, 재단 등의 지원을 통해 레지던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오픈 레지던시로 구분된다. 또한 타 기관과 협력하여 국제적 레지던시 교환 등의 파트너십 레지던시를 지원하기도 한다.

코브 파크는 예술가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학제간 교류와 문화적 연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 개인의 작업 뿐만 아니라 협업 프로젝트도 지원하며, 주제에 따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지역 사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코브 파크는 지역 사회 단체, 학교, 청소년 프로그램 등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 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모색하기 위한 리서치 프로젝트, 농촌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예술 프로젝트, 건강 관련 이슈로 인해 회복중인 개인을 대상으로 예술 치유와 재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였다.

예술가뿐만 아니라 연구자, 비평가, 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는 3박의 짧은 기간부터 최대 4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코브파크는 레지던시 체류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시사점

코브 파크는 창작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예술 치유와 재활 프로젝트,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포용적 환경을 조성할

10) Cove Park(<https://covepark.org/>, 자료검색일 2024.12.13.)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재단,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며, 학제 간 교류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그림 12] 코브 파크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젝트



© 코브파크 홈페이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s Collide Residency, Swiss)¹¹⁾

유럽입자물리연구소 예술가 레지던스 개요 및 운영 현황

CERN(CERN,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은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걸쳐 위치한 세계적인 입자물리학 연구소로, 2011년부터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목표로 Collide Residenc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와 과학자가 협력하여 과학적 아이디어를 예술적 창작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CERN의 첨단 연구 환경과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제시하며,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Collide Residency는 예술가들에게 CERN의 연구 시설과 연구자들과의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체류 기간 동안 예술가들은 과학적 아이디어를 탐구하며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체류비와 15,000스위스 프랑의 프로젝트 개발비를 지원받는다. 프로그램은 시각 예술, 퍼포먼스, 문학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이 지원 가능하며, 과학과 기술에 관심 있는 예술가들에게 특히 적합하다. 연구 과정이나 결과물이 반드시 완성될

11) 유럽입자물리연구소(<https://arts.cern/collide/>, 자료검색일 2024.12.2.)

필요는 없으나, 창작 과정에 대한 경험을 문서화하고, 워크숍, 강연 등의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시사점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다. 과학자와 예술가 간의 협업을 통해 과학적 발견을 보다 대중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며, 예술가들에게는 첨단 과학 환경에서 영감을 얻고 창작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과학과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림 13] (좌)대규모 몰입형 예술작품 HALO / (우)고광도 대형 강입자 충돌 실험하는 예술가



© 콜라이드 홈페이지



2) 생활권 내의 공간을 활용한 예술창작공간

최근 15분 도시¹²⁾ 개념이 확산되면서, 도심 외곽의 유휴공간이나 전통적인 예술 창작공간이 아닌, 생활권 내의 공공시설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다. 생활권 내의 도서관, 우체국 등과 같은 공공 공간을 예술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도시 재생,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그리고 예술의 일상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예술과 일상을 더욱 가깝게 연결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을 더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가들에게는 더 넓은 창작 환경과 새로운 관객층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공공 공간 내에서도 기존의 비활성화된 공간을 창의적으로 재활용하는 사례로써, 지역경제

12) 학교, 병원, 문화시설과 같은 필수 서비스가 도보 15분 거리 내에서 해결되는 도시 구조를 말함.

와 문화적 활력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예술가가 시청 내에 들어가 공공정책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예술가들이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정책 설계, 지역사회 소통, 문제 해결 등의 과정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렇듯 생활권 내 공공 공간을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은 예술의 일상화,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그리고 도시 재생의 중요한 전략이다.

레글러 도서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Legler Regional Library Artist in Residence Program, Chicago, USA)¹³⁾

레글러 도서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개요 및 운영 현황

레글러 도서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시카고의 문화부(DCASE)와 시카고 공공 도서관(CPL)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카고 레글러 지역 도서관 내의 스튜디오 공간을 예술가에게 제공하는 1년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레글러 도서관은 리노베이션을 통해 메이커랩(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포함), 최첨단 사운드 및 녹음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스튜디오 등을 새롭게 갖추었으며,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입주 예술가는 1년 동안 도서관 내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게 되며, 시카고 문화부로부터 활동비, 교통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총 50,000달러의 지원금을 받는다. 예술가는 근무 시간을 부여받아 도서관에 상주하며,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미술 창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입주 기간이 종료되면 지역 내에서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시사점

13) 레글러 도서관(https://www.chicago.gov/city/en/depts/dca/supp_info/air4.html, 자료검색일 2024.8.30.)

레글러 도서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예술가들은 도서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예술이 단순한 창작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14] 레글러 도서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자 인터뷰



© CBS CHICAGO

970 West Studio(Colorado, USA)¹⁴⁾

970 West Studio 개요 및 운영 현황

970 West Studio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메사 카운티 도서관(Mesa County Libraries)에서 콜로라도 주 메사 카운티에 위치한 지역 예술가들에게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스튜디오 내에는 사진 및 영상 장비, 공연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어 예술가들이 필요한 장비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입주 조건은 콜로라도 주 메사 카운티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술 장르에 제한이 없다. 선정된 예술가는 14주 동안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2,000달러의 활동 수당을 받는다. 또한, 예술가는 도서관 직원과 협력하여 도서관에서 워크숍 등 주민들을 위한 3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

14) 970 West Studio(<https://mesacountylibraries.org/services/970weststudio/air/applyforair/>, 자료검색일 2024.8.30.)

화한다. 예술가는 주당 최소 6시간 이상 스튜디오에서 작업해야 하며, 입주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작품과 워크숍의 사진, 영상, 자료 등을 아카이브해야 한다.

시사점

970 West Studio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예술가들이 주민들과 교류하고 워크숍을 통해 예술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풍요로움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지역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 활동을 지역 사회와 연결하여 더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된다.

[그림 15] (좌)970 West Studio 홍보 이미지 / (우)970 West Studio 내부



© 970 West Studio



크리에이티브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Creative in Residence Program, Melbourne, Australia)¹⁵⁾

크리에이티브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개요 및 운영 현황

크리에이티브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호주 멜버른의 빅토리아 공공 기록 보관소 (Public Record Office Victoria, PROV)에서 2024년에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빅토리아주의 공식 기록물인 역사적 문서와 법적 문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빅토리안 아카이브 센터(Victorian Archives Centre)에서 운영되며, 예술가들이 PROV의 컬렉

15) 빅토리아 공공 기록 보관소 홈페이지(<https://prov.vic.gov.au/whats/creative-residence-program>, 자료검색일 2024.9.3.)

션을 활용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을 제공한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호주 국적의 예술가로, 특히 PROV의 컬렉션을 활용한 작업을 하거나 컬렉션과 연관된 작업을 하는 예술가를 찾는다. 선정된 예술가는 3개월 동안 빅토리아 아카이브 센터 내 전용 창작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으며, PROV의 자료에 접근하여 새로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창작 과정 전체를 문서화해야 하며, 15,000달러의 전문가 수당과 최대 10,000달러의 추가 재료비 및 전시회 준비 지원금을 받는다. 예술가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 PROV 아카이브 직원으로부터 연구 지원과 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다.

시사점

크리에이티브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역사적 문서와 기록물을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과 기록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예술가들이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탐구하고,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과 표현을 시도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기록 보관소의 자료를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대중에게 기록물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16] (좌)빅토리아 아카이브 센터 전경 / (우)2024년 입주작가 전시 전경



© PROV(Public Record Office Victoria)



웨스트베르크(WestWerk, Hamburg, Germany)¹⁶⁾

WestWerk 개요 및 운영 현황

독일의 도시 함부르크 문화 및 미디어부는 예술가센터 웨스트베르크와 함께 협력하여 국제 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다. 창작공간은 함부르크 도심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예술가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공간은 스튜디오, 갤러리, 소극장, 주거용 아파트, 미술 관련 서점으로 이뤄져 있다. 스튜디오는 시각 예술, 사진, 영화 및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특히 모든 공간은 베리어프리로 설계되어 있어 포용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에는 중국, 영국, 베트남의 작가가 입주하여 작업했으며, 2023년에는 이집트, 가나,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총 4명이 입주작가로 활동하였다.

레지던시 기간 동안 다양한 전시회, 워크숍, 이벤트 등이 열려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장려하며, 함부르크의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WestWerk는 또한 국제적인 예술가들에게도 열려 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입주 작가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월 900유로의 경비와 이동을 위한 왕복 여비를 제공한다. 또한 입주 이후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드는 비용에 대해 1인당 500유로를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시사점

이처럼 함부르크시와 민간 예술가센터인 WESTWERK가 협력하여 운영되는 형태의 레지던시는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교류의 공간을 제공한다. 레지던시가 도심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와 예술 공동체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와 예술이 더욱 풍부해지며, 예술가들의 작품이 더 넓은 관객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예술가 간의 협업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된다.

16) 웨스트베르크(<https://www.hamburg.de/politik-und-verwaltung/behoerden/behoerde-fuer-kultur-und-medien/themen/kulturforderung/residency-for-international-artists-at-westwerk-931724>, 자료검색일 2024.8.22.)

[그림 17] (좌)WestWerk 전경 / (우)WestWerk 내부



© WestWerk



의정부 미술도서관 ‘오픈스튜디오’¹⁷⁾

의정부 미술도서관 ‘오픈스튜디오’ 개요 및 운영 현황

2019년 12월에 개관한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미술관과 도서관을 최초로 결합을 시도한 특화 도서관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미술과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며, 경기 북부 지역에 문화예술 기반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협력하여 설립하였다. 개관하면서부터 신진 작가를 지원하는 ‘오픈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2회 공개모집을 통해 2명의 작가를 선발하는데, 개인전의 이력이 없는 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2024년 기준으로 총 18명의 작가들에게 작업실을 지원하였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선정된 작가는 6개월 동안 3층의 개인 창작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고, 오픈스튜디오,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 결과보고 기획전시에 참여하여야 한다. 재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결과보고 전시 비용도 지원받는다.

시사점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예술적 영감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술 중심의 도서관이라는 특화된 운영 방식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하며, 특히 신진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

17) 의정부 미술도서관(https://www.uilib.go.kr/art/board/view.do?menu_idx=114&manage_idx=76&board_idx=30241&viewPage=2, 자료검색일 2024.10.02.)

하고 문화예술의 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그림 18] (좌)도서관 내부 / (우)입주 작가



© 의정부 미술도서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도서관 상주 작가 프로그램’¹⁸⁾

수영구도서관 ‘상주작가 프로그램’ 개요 및 운영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문학작가를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작가들에게 6개월간 상주작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창작공간을 제공하며, 그와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학작가가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별도의 창작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상주작가를 공개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술가 상주 프로그램과 지원

등단 3년 이상의 문인, 개인作品集 1권 이상 발간 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상주작가는 주5일 중 1일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그 외 4일은 도서관 상주 공간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등 도서관 시설을 활용한 행사를 진행한다. 2024년 수영구 도서관의 경우 작가와 함께 단편소설을 읽는 낭독모임, 일기, 독후감 등 저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글쓰기 클럽 운영, 작가의 글쓰기 멘토링, 삶을 돌아보는 글쓰기를 통한 시니어들의 나를 해방하는 글쓰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8) 수영구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안내

https://www.suyeong.go.kr/reserve/board/view.suyeong?boardId=BBS_0000004&menuCd=DOM_000001607001000000&paging=ok&startPage=1&dataSid=261868

시사점

문학작가들에게 도서관은 자료를 찾기도 용이하며, 창작 활동에 집중하기에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상주작가 프로그램이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문학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은 문학 생태계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9] (좌)서정아 상주작가 인터뷰 / (우)수영구도서관 전경



© 그라모스 BLOG



3) 리트리트형 예술창작공간(Retreat Residency)

예술가들이 외부의 방해 없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을 제공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나아가 창작을 전혀 하지 않고 휴식만 취하다 가는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달리, 리트리트형 레지던시는 협업이나 공공 프로그램보다는 예술가 개인의 창작에 집중한다. 자연 속이나 고립된 장소에서 주로 진행되며,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러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성찰과 창작에 집중하는 시간을 제공하며, 예술가들이 새로운 영감을 얻고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현대 사회의 빠르고 복잡한 흐름 속에서 예술가들이 잠시 멈추고 자신만의 창작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창

의적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Arts in the Parks, USA¹⁹⁾

Arts in the Parks 레지던스 개요 및 운영 현황

미국 내무부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 NPS)의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예술과 자연의 결합을 기념하며, 현재 미국 전역의 50개 이상의 국립공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각 국립 공원별로 예술가 레지던시 신청을 받는다. 알래스카의 데날리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Denali National Park and Preserve, Alaska)에 있는 오두막에서 체류하며 작업을 해도 되고, 아이오와주의 허버트 후버 국립사적지(Herbert Hoover National Historic Site, Iowa)에서 역사적인 기념비에 영감받아 작업이 가능하기도 하며, 코네티컷주의 웨어 팜 국립사적지(Weir Farm National Historic Site, Connecticut)에 있는 현대식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등 각 지역별로 독특한 자연과 문화적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선정된 작가들은 2~4주 동안 머물며 작업할 수 있으며, 미국 전역의 다양한 국립공원에서 시각 예술가, 작가, 음악가 등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각 공원마다 운영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예술가들에게 숙소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입주조건은 각 공원마다 상이하다. 특정 공원에서는 프로그램에 맞춰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기간동안 작업한 결과물을 결과발표회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유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창작 작품 중 최소 1점을 국립공원에 기증하여야 한다.

시사점

이 프로그램은 예술과 자연 보존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예술가들이 자연 환경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과 환경 보호가 상호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연 환경 속에서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아 작품을 창작할 수 있으며, 그러한

19) 미국 내무부 국립공원청(<https://www.nps.gov/subjects/arts/air.htm>, 자료검색일 2024.8.23.)

작품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20] NPS, Residency Programs Across the National Park System



© NPS

The Narrows Art Retreat(Canada)²⁰⁾

The narrows art retreat 개요 및 운영 현황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위치한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으로 자연 환경 속에서 사색하고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태공간이다. 이 공간은 예술가인 에리카 콘라드(Erica Konrad)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일상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환경에서 예술적 작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예술가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금액은 개인 레지던시는 일주일에 CAD 1,200달러(약 100만 원), 공유 레지던시는 주당 CAD 1,000달러(약 100만 원)이다. 일부 장학금을 통해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간은 전용 스튜디오와 숙소를 이용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번 식료품을 공급받는다.

시사점

예술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 예술가들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얻고, 집중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 The narrows art retreat(<https://resartis.org/listings/the-narrows-art-retreat/>, 자료검색일 2024.10.02.)



© The narrows art retreat



프로젝트 아이나(Project Aaina, India)²¹⁾

프로젝트 아이나 예술가 레지던스 개요 및 운영 현황

프로젝트 아이나는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에서 ‘아트케이션(Artc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과 휴식을 결합한 전형적 리트리트형 레지던시이다. 히말라야 산맥의 다울라다르와 시발릭 언덕 사이에 위치해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영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젝트 아이나의 입주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예술과 마음챙김을 결합한 체험을 통해 창의성과 내면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주요 활동으로는 그림 그리기, 에코 프린팅, 블록 프린팅과 같은 예술 워크숍, 요가와 명상 등 심신의 안정을 위한 활동, 드럼 서클과 소리 치유를 통한 음악적 경험, 하이킹 등 자연과의 교감 활동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는 예술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사점

아트케이션 프로그램은 예술과 휴식을 결합하여 참가자들이 창의성과 내면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특히,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한 접근은 현대인의 복잡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예술이 개

21) Project Aaina(<https://www.projectaaina.in/andretta>, 자료검색일 2024.12.13.)

인의 성장과 치유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림 22] 프로젝트 아이나 활동사진



© 프로젝트 아이나

라 메종 드 보몽(La Maison de Beaumont, France)²²⁾

라 메종 드 보몽 예술가 레지던스 개요 및 운영 현황

라 메종 드 보몽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루베롱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국제 예술가 레지던시를 운영한다. 18세기 지어진 마을 주택을 개조하여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휴식을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방해받지 않고 작업에 몰두할 수 있으며,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은 창의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2023년에는 아트 커넥트 매거진에 프랑스 남부 최고의 아티스트 레지던시로 선정된 바 있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참여 작가는 최소 2주에서 최대 12주까지 머무를 수 있으나, 가장 작은 스튜디오가 2주당 575유로부터 가장 넓은 스튜디오는 1350유로까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스튜디오 이외에도 음악 및 전시실, 공용 테라스,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레지던시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작업을 전시하거나 콘서트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시사점

예술가들에게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프로방스의 자연과 문화적 풍요로움 속에서 예술가들은 새로운 영감을 얻고, 다양한 분야의 동료들과 교류하

22) La Masion de Beaumont(<https://lamaisondebeaumont.com/ko/artistresidency/>, 자료검색일 2024.12.13.)

며 협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림 23] (좌)라 메종 드 보몽 전경 / (우)발코니



© La Maison de Beaumont



4) 확장형 레지던시

확장형 레지던시는 기존의 전통적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적, 기술적 가능성을 모색하며 예술 창작 활동의 지평을 넓히는 레지던시 유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특정 장소나 물리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확장형 레지던시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창작과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운영주체가 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도 이에 해당한다.

노마딕 예술가 레지던스(Nomadic Artist Residence)²³⁾

노마딕 예술가 레지던스 개요 및 운영 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8년부터 노마딕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몽골예술위원회와 기관교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특정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예술가들이 일정한 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래 거주를 뜻하는 레지던스라는 개념은 예술가들에게는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과 활동을 의미한다고 대개 알려져 있는 반면, 이란, 몽골, 쿠바 등의 지역에서는 체류형 작업공간으로서의 레지던스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²⁴⁾ 사업 첫 해에 몽골에서 시작해 이란, 바이칼, 아프리카 등의 국가에 체

23) 한국예술위원회(https://www.arko.or.kr/business01/business_110716_1_detail.jsp, 자료검색일 2024.12.2.)

24) 임기현(2012.10.5.),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도자료(https://www.arko.or.kr/board/view/4057?bid=&cid=27143&sf_icon_category=, 자료검색일 2024.11.29.)

류하며 개별 창작 및 공동 창작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참가 자격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왕복 항공료, 현지 체재비, 창작 활동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은 기획 작업과 개인 작업, 공동 작업으로 구분되는데, 기획 작업은 작가 간의 협업을 이끌어 내 미래 전망을 구상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 작업은 현지 환경에서 즉흥적으로 작업을 구상하고, 현지 물품으로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공동작업에는 양국가 간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창작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시사점

기존의 고정된 공간에서 창작 활동을 진행하던 예술가 레지던스의 전형적인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국가와 지역을 이동하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체험하며 즉흥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한다.

[그림 24] 몽골예술위원회 및 ARKO 몽골 노마딕 예술가 레지던스



© 한국예술위원회

SomoS Berlin Virtual Artist in Residence²⁵⁾

SomoS 가상 예술가 레지던스 개요 및 운영 현황

이 프로그램은 베를린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SomoS에서 운영하는 100% 비대면 레지던시로서 3개월 간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레지던시와 동일한 수준의 네트워킹,

25) SomoS Berlin Virtual Artist in Residence(<https://somos-arts.org/somos-berlin-virtual-artist-residency/>, 자료검색일 2024. 12.11.)

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매주 온라인 그룹 화상 회의를 통해 포트폴리오 개발, 작품 비평 등을 진행한다. 물리적 공간이 없이도 실제 레지던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모든 장르와 배경의 예술가들이 지원 가능하며, 참여 비용은 월 450유로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과 장비(헤드셋 등)가 필요하다. 매주 개별 큐레이션 지원과 그룹 화상 회의를 통해 작품 발전을 위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네트워킹 기회와 전문가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창작 활동을 심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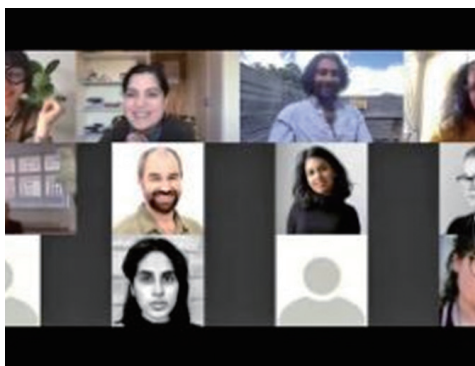
시사점

가상 레지던시를 통해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도 전 세계 예술가들이 네트워킹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정적 및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물리적 레지던시 참여가 어려운 예술가들에게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의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적인 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림 25] (좌)SomoS 가상 예술가 레지던시 오픈콜 / (우)그룹 화상 회의



© SomoS



퐁피두 센터 협력 레지던시

(Centre Pompidou Collaborative Residencies, France)²⁶⁾

퐁피두 센터 협력 레지던시 레지던스 개요 및 운영 현황

26) 퐁피두 센터 레지던시(<https://www.centrepompidou.fr/en/the-centre-pompidou/regional-action>, 자료검색일 2024.12.11.)

풍피두 센터는 지역 및 국제 예술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여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다. 레지던시는 예술가와 지역 주민, 전문가 간의 협업을 강조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와 현대 예술 확산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풍피두는 브르타뉴의 문화 단체와 함께 농촌 지역에서 현대 무용과 사운드 창작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Villa Albertine과 협력하여 텍사스 마르파에서 사막 환경을 주제로 한 생태학적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즉 풍피두는 자원 제공, 홍보 등을 담당하면, 지역 단체가 지역적 맥락에 맞춘 프로그램을 풍피두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한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창작비, 체류비, 작업 공간을 제공한다.

시사점

풍피두 센터의 협력형 레지던시는 현대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며, 지역 사회와 예술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적 맥락에서 창작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성화와 예술의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 및 국제적 파트너십을 통해 예술과 사회적 문제를 융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5) 복합문화예술공간형 레지던시

복합문화예술공간형 레지던시는 전통적인 레지던시의 창작 공간 개념을 확장하여, 예술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 창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 공간에서 운영되는 레지던시 유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예술 창작뿐 아니라 대중과의 교류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창작, 전시, 교육, 상업 활동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르 썩카트르 파리(Le Centquatre-Paris)²⁷⁾

르 썩카트르 파리 개요 및 운영 현황

르 썩카트르 파리는 1873년 지어진 옛 시립 장례식장을 예술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재구성하여 2008년에 개관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이 공간은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창작하는 열린 플랫폼을 제공한다. 특히, 공간 내 창작공간과 라빌레트 공원의 연계를 통해 도시 재생과 지역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공간은 총 18개의 전문 예술가 창작 스튜디오와 다용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 컨벤션홀, 카페, 아트숍, 어린이집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목적 구성은 창작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 공간에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104 팩토리과 작품의 상품화를 목표로 한 프로토타입 제작을 지원하는 누벨 파브릭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며, 창작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한다. 예술가들은 이 공간에서 작업하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작품을 공유할 수 있다. 작업실은 2주에 한 번씩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예술가와 대중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전시, 공연을 기획하여 대중 참여를 유도하며, 예술과 일상이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문화 교류의 장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환경 개선, 도시 재생 등 지역 이슈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야 한다. 르 썩카트르 인근의 라빌레트 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에서 창작 활동을 진행하거나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시사점

르 썩카트르 파리는 예술 창작과 시민 참여를 결합한 혁신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의한다. 이러한 공간은 예술가와 시민 간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

27) 르 썩카트르 파리(<https://www.104.fr/>, 자료검색일 2024.12.11.)

을 일상 속으로 확장하며, 지역 재생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규모 복합공간을 통해 창작과 교육, 상업 활동을 결합한 사례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이다.

[그림 26] (좌)르 생카트르 파리 전경 / (우)르 생카트르 파리 내부



© SomoS

워터셰드 미디어센터(Watershed, UK)²⁸⁾

워터셰드 미디어센터 개요 및 운영 현황

워터셰드 미디어센터는 1982년 영국 브리스톨 하버사이드 지역에 설립된 영국 최초의 미디어 센터로,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 항구 인근의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3개의 영화 상영관, 창작스튜디오, 디지털 미디어 아트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보조금과 기부금 이외에도 상영관의 수익금으로 자체 수익구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워터셰드의 퍼베이시브 미디어 스튜디오는 잉글랜드 대학, 브리스톨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된 협업 랩으로 예술가, 연구자, 크리에이터, 기술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 스튜디오는 특히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구, 제작, 상연을 지원하고 예술가들 간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사점

과거 창고를 재생하여 창작스튜디오를 비롯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는 사례이다. 특히 예술가, 연구자, 크리에이터, 기술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다년간 공동 연구

28) Watershed (<https://www.watershed.co.uk/studio/news>, 자료검색일 2024.12.13.)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동시에 영화관 등 대중시설을 운영하면서 예술창작실험과 문화향유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림 27] 워터셰드 전경 및 내부



© SomoS

6) 공공정책 연계 레지던시

공공정책 연계 레지던시는 예술가들이 단순히 창작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시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 레지던시들은 예술과 공공정책을 융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변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 예술가가 공공기관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사회적 가치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예술이 공공정책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의 중요한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예술가의 역할이 창작의 영역을 넘어 사회와 정책의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환경보호청 예술가 레지던스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A)²⁹⁾

미국 환경보호청 예술가 레지던스 개요 및 운영 현황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예술과 문화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필요성에서 2024년에 처음으로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특히 물 관련 환경 문제(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노후화된 인프라 문제 등)에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고자 시작됐다. 프로그램은 국립예술기금회(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시도한다.

29) 미국 환경보호청
(<https://www.epa.gov/newsreleases/epa-announces-inaugural-artist-residence-program-partnership-national-endowment-arts>, 자료검색일 2024.9.30.)

미국 전역의 물과 관련된 6개 지역(시애틀의 듀와미시 강, 뉴멕시코의 리오 그란데,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 만, 뉴욕-뉴저지 하버, 필라델피아의 델라웨어 강, 보스턴의 미스틱 강)의 선정된 장소에서 활동하게 된다. 각 지역은 오랜 기간 물 회복 및 기후 회복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온 곳으로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각 지역의 수질 개선, 기후 회복력 증진,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목표로 한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예술가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 문제를 다루는 공공 예술 활동을 수행한다.

선정과 관련해서는 물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를 모집하며, 각 지역에 선정된 예술가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예술적 프로젝트를 개발하여야 한다.

시사점

예술이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특히, 예술가들이 물 문제와 관련된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후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환경과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접근법이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림 28] (좌)Yetti Frenkel의 Mystic River Watershed 벽화 / (우)환경 정의 보트 투어



© EPA



퍼블릭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Public Artist in Residence, NY, USA)³⁰⁾

퍼블릭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개요 및 운영 현황

뉴욕시 문화부는 공공예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술가를 시에 배치하여, 사회의 다양한 당면 과제를 예술적 시각으로 해결하고자 ‘페어(PAIR, Public Artists in Residence)’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와 시 정부가 협력한 새로운 방식의 레지던시이다. 지역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예술가들이 공공 정책 및 시스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가들은 시 정부 내에서 1년간 거주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의 첫 3개월 동안 연구를 통해 기관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이후 남은 9개월 동안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며, 공공에 발표해야 한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입주 작가들은 시민의 인식과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프로그램 진행 동안 시 정부와 협력하여 공공 정책에 예술적 접근을 적용한다. 과거 레지던시 프로젝트로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식을 증진하는 캠페인, 청소년 재활을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선정된 예술가들은 연간 약 4만 달러의 지원금과 시청 내부의 작업 공간, 프로젝트 비용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사점

예술가를 뉴욕시에 배치하는 레지던스는 뉴욕시가 예술가를 단순히 작품을 제작하고 생산하는 이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정책 및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서, 복지국 등에서 예술가가 참여해 주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예술가에게 창작공간 안에서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전통적 레지던시 형태에서 예술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예술계와 공공 부문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한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0) PAIR(<https://www.nyc.gov/site/dcla/publicart/pair.page>, 자료검색일 2024.8.22.)



© NYC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보스턴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Boston Artist in Residence, Boston, USA)³¹⁾

보스턴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개요 및 운영 현황

보스턴 예술 문화국은 보스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보스턴 계획 및 개발청(BPDA), 환경부, 보스턴 교통부(BTD)와 협력하여 보스턴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Boston AIR)을 운영한다. Boston AIR는 예술가들이 보스턴 시의 다양한 부서들과 15개월 간 협업하고, 도시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과거 프로젝트로는 Grove Hall에서 노인들과 함께 안전한 횡단보도 만들기, 구술 역사 청취 부스 마련, 비상 관리 사무소의 업무 관련 문화적 비상 대응 프레임워크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래로 총 25명의 예술가들이 12개 이상의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과 지원

선정된 입주 작가들은 시의 다양한 부서와 협력해 보스턴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고, 회복성,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스턴 시의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시민과 함께 협력적 창출을 지원하는 등 프로젝트를 공동 설계해야 한다. 선정된 작가는 37,000달러의 아티스트 수당과 함께 10,000달러의 프로젝트 추진 비용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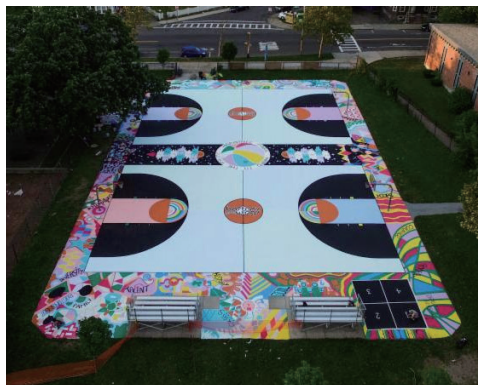
시사점

예술과 공공정책을 결합하여 시민 참여를 증대시키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문제

31) City of Boston
(https://www.boston.gov/news/new-cohort-boston-artists-residence-and-funding-continued-projects-announced?_x_tr_sl=en&_x_tr_tl=ko&_x_tr_hl=en, 자료검색일 2024.09.30.)

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예술가가 시 정부와 협력하여 직접적으로 정책 변화와 시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이 도시 발전과 공공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0] (좌)청소년 및 가족 센터와의 협업 프로그램 전경 / (우)청소년 이용 모습



© City of Boston



이 장에서는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예술창작공간을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해보았다. 해마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주제기반형, 도서관, 기록물 보관소 등 지역 공간을 활용한 레지던시, 단절된 자연환경 속에서 예술창작을 이어가는 리트리트형 레지던시, 특정 공간을 넘어 지역과 장소의 경계를 넘는 확장형 레지던시, 복합문화공간형 레지던시, 공공 영역과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공공정책 연계형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창작공간의 운영주체는 지역정부 외에도 비영리 단체, 개인 예술가 및 기관간 협력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예술창작공간의 주제와 형태는 창작공간의 지향점에 따라 특색있게 운영이 가능하며, 이렇게 다양한 창작 환경을 통해 예술인들은 자유로운 창작기회를 경험할 수 있다. 향후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을 도출함에 있어 창작공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III.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현재

1.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현황
2.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관련 의견 수렴
3. 조사 결과 종합

III.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현재

1.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현황

2024년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약 17개의 창작공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창작공간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다. 파악된 창작공간 중 지자체 및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운영 창작공간은 15개소, 민간이 운영하는 창작공간은 2개소가 있으며, 공공 운영 창작공간 중 구 단위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은 4개소이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시각예술 특화 공간이 8개소이고, 전 장르에서 입주가능한 공간은 9개로 시각예술 창작공간이 많은 편이다. 권역별로는 금정구가 5개소로 가장 많고, 사하구와 중구가 각 4개소, 부산진구 2개소, 해운대구, 남구, 서구, 수영구에 각 1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입주기간은 3개월 이하 단기 입주부터 최대 3년까지 공간별로 다르다.

[표 4]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현황 (2024년 기준)

구분	공간명	위치(개소시기)	운영주체	세부내역	비고
1	감만창의문화촌	남구 감만동 (2013)	부산문화재단	· 장르: 전 장르 · 입주현황: 개인 또는 단체 12팀 · 입주기간: 최대 3년(기본 2년) · 입주작가 지원: 창작지원금 연 130만원 제공	
2	홍티아트센터	사하구 다대동 (2013)	부산문화재단	· 장르: 시각예술 · 입주현황: 8명 · 입주기간: 3~11개월 · 창작지원금 월 50만원 제공	
3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중구 중앙동, 동광동 (2009)	부산문화재단 (위탁운영: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 장르: 전 장르 · 입주현황: 7개 건물, 30팀 · 입주기간: 3년	

4	부산국제 아트타운	중구 신창동 (2005)	부산국제아트 타운작가회	· 장르: 시각예술 · 입주현황: 64명 · 입주작가 지원: 임대료 지원 (연간80만원)
5	용두산 미술의 거리	중구 광복동 (2008)	부산미술협회	· 장르: 시각예술 · 입주현황: 6명
6	부평아트 스페이스	중구 부평동 (2010)	부산미술협회	· 장르: 시각예술 · 입주현황: 3명
7	반딧불이 창작공간	사하구 다대동 사하구 하단동 부산진구 연지동 서구 서대신동 (2017)	부산문화재단	· 장르: 전 장르 · 입주현황: 7팀(개인 4, 단체 3) · 입주기간: 최대 3년 (기본 2년+연장1년)
8	창작공간 두구	금정구 두구동 (2023)	부산문화재단	· 장르: 전 장르 · 입주현황: 8개실 · 입주기간: 최대 1년 · 주요시설: 창작공간, 공동작업공간, 전시실 등 · 특징: 장애예술인, 비장애예술인 통합 운영
9	장애예술 창작공간 온그루	수영구 망미동 (2020)	부산문화재단	· 장르: 전 장르 · 입주현황: 5개실, 단체 2팀, 개인 3명 · 입주기간: 상반기, 하반기 · 주요시설: 창작공간, 커뮤니티실, 다목적실 · 특징: 장애예술인 전용
10	부산 시민공원 문화예술촌	부산진구 범전동	부산시민공원	· 장르: 시각예술 · 입주현황: 5개실 (도예, 판화, 금속, 섬유, 레진) · 입주기간: 최초 3년 연장 가능 · 사용료: 연 470만원 내외
11	서동예술 창작공간	금정구 서동 (2012)	금정문화재단	· 장르: 전 장르 · 입주현황: 5명
12	홍티 예술촌	사하구 다대동 (2017)	사하구청	· 장르: 시각예술 · 입주현황: 8명 · 입주기간: 2년

13	감천 문화마을 레지던시	사하구 감천동	사하구청	· 장르: 시각, 공예, 문학, 사진 등 · 입주현황: 9개 공방 · 입주기간: 기본 1년, 최대 5년	
14	셋골 문화예술촌	금정구 서동 (2015)	금정문화재단	· 장르: 전 장르 · 입주현황: 3명	
15	솔밭 예술마을	해운대구 우동 (2013)	해운대구청	· 장르: 공예 (유리, 라탄, 반지, 인형, 향수) · 입주현황: 5개실 · 입주기간: 2년	
16	예술지구P	금정구 회동동 (2013)	예술지구P	· 주요장르: 시각예술 · 입주기간: 8개월 · 입주인원: 5명 이내 · 주요시설: 주거겸용 스튜디오, 전시실, 포토스튜디오, 도자실 등	민간 운영
17	오픈아트 스페이스 머지	금정구 장전동	오픈아트 스페이스 머지	· 주요장르: 다원예술 · 입주기간: 1개월	민간 운영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부산지역에서 창작공간 지원과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해운대구이다. 그 외 일부 자치구에서는 예술인 복지 지원 및 예술활동 진흥 조례 내에 창작공간 지원조항을 명기하고 있다.

[표 5]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례 제정 현황 (2024년 기준)

구분	조례명	제정	창작공간 관련 내용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제7조(지원사업) 3.청년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거리 조성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2014	시 운영 창작공간 외 부산지역 창작공간 관련 지원 사항 명기 제2조(정의)창작공간:작업실,교육공간등의시설을 갖추고예술인들의창작활동과시민대상문화체험및 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공간 제3조의2(명칭및소재지)감만창의문화촌,홍티아트센터,부평동창작지원센터 제5조(지원계획의수립,시행)/제6조(실태조사)/제7조(지원사업)등
금정구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	금정구 서동예술창작공간, 석골문화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명기 제4조(기능),제2장시설의운영,관리등
기장군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2021	제5조(창작공간 지원) 군수는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북구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3	제8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사하구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17	제4조(지원사업) 4.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창작공간에 입주한 작가의 창작활동
사하구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2020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명기 제3조(시설)/제4조(사업)/제5조(입주작가선발)등
수영구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제8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해운대구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2013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에 관한 사항 명기

현재 운영되는 예술창작공간 중 부산지역 예술인 외 예술인이 입주가능한 시설은 공공 영역에서는 홍티아트센터가 있고, 민간 영역에서는 예술지구P와 오픈아트 스페이스 머지

가 있다. 창작공간의 대다수가 부산지역 예술인들을 입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시각예술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간들이 다수이며, 활동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입주 가능한 공간은 감만창의문화촌, 또따또가, 온그루, 서동예술창작공간, 섯골문화예술촌 정도이다. 예술인들이 주로 입주를 하고 있으며, 기획자나 연구자가 입주 가능한 공간은 또따또가가 유일하다.

예술창작공간 관련 조례의 내용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술창작공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다소 부족한 편이다.

2.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관련 의견 수렴 - 표적집단 면담조사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부산지역 예술인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참여 경험이 있거나 공간 운영 경험이 있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표적집단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개요 및 내용

- ▶ 조사기간 : 2024년 8월 30일 ~ 9월 12일
- ▶ 조사횟수 : 총 7회
- ▶ 조사대상 : 부산지역에서 예술창작공간 참여 및 운영 종사자 등
- ▶ 조사 참여자 : 40명(공연예술 9명, 문학 2명, 문화일반 6명, 다원예술 5명, 시각예술 18명)
- ▶ 질문구성 : 창작공간 인지, 경험을 통한 개선점, 일상적 창작공간과 레지던시 창작공간에 대한 욕구, 부산 및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소개, 부산형 창작공간에 대한 정책 제안 등
- ▶ 질문내용 - 공통질문
 - 창작공간과 관련하여 참여했거나 운영했던 경험 소개
 - 참여했거나 운영했던 창작공간에 대해 개선하고 싶은 사항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일상적 창작공간에 대한 요구 사항
- 레지던시형 창작공간 입주 희망 선호 정도
- 참여하고 싶은 레지던시 프로그램
- 알고 있는 레지던시형 창작공간 중에 참여하고 싶거나 소개하고 싶은 공간

▶ 질문내용 - 특화질문

- 복합문화공간, 일상적 창작공간 등의 창작공간 정책 변화에 대한 의견
- 예술하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예술창작공간 정책 제안

[그림 31] 1차, 2차, 3차, 4차, 6차, 7차 FGI 진행 현장



2) 주요 조사 결과

그룹 면담은 총 7회 진행되었으며 진행자의 질문에 따라 골고루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전 과정은 글과 녹음을 통해 기록하였다. 면담조사를 통해 레지던시 창작공간 프로그램 참여 또는 운영 경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여 부산의 레지던시형 창작공간의 유무형적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진단된 레지던시형 창작공간의 문제점과 더불어 일상적 창작공간과 레지던시형 창작공간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국내외 사례 소개를 바탕으로 레지던시형 창작공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형태의 공간 확충

(창작공간 확충) 폐교를 아트빌리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음. 부산 안에서도 국유지 내에 공가 또는 폐가 중에서 예술가들이 작업하기 좋은 공간이 많음.(예를 들어, 부산의 스노우캐슬처럼 주택가와 떨어져 있어서 소음걱정도 없고 오래 방치되어있는 공간 활용). 그런 공간을 예술가들에게 매칭해주는 노력이 필요함. 또는 파주 예술촌처럼 대규모 예술촌을 만들면 좋을 것임.

(도시 환경 특화 창작공간) 레지던시의 위치를 선택할 때 부산만의 특색이 있는 입지를 활용해야 함. 가령 바다, 강, 폐건물, 역사적 건물 등 주변을 다 고려해서 기획을 해야 함. 주변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부산만의 특별한 공간에서 영향받고 영감받는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함.

(제작소 차원의 실험적 창작공간) 과거처럼 글쓰고 연습하는 연습실만이 필요한 게 아님. 예를 들어 기존의 예술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기술융합 연극을 시도해 볼 곳이 없음. 부산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관련 예술가들이 전국에서 몰려들 것임(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유명하여 예술가들이 선호하는 덴마크 하우트(HAUT) 민간극장 등이 그 예임).

(예술창작 전 과정 구현 가능) 연습에서 쇼케이스까지 원스톱으로, 전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레지던시도 필요함.

(빈집 활용 창작공간) 프랑스의 스쿼트³²⁾처럼 건물주들이 세금 감면을 목표로 단기간 동안 예술가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실제로 해외의 몇몇 도시에서는 공실(공가, 폐가)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동기가 됨. 이처럼 예술가들이 저렴하게 예술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공공에서 제도적으로 건물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음.

(기술 특화 창작공간) 뉴미디어를 하는 작가들에게는 테크놀로지와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화된 공간이 필요함. 예를 들어 대형 wall이나 beam 등 고가의 기자재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함.

(창작공간 기능 확대) 서울의 대학로에 위치한 예술청에 마련된 공간이 있는데, 예술가의 업무 미팅이나 리서치, 휴식이나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며 또 지하철역(혜화역) 바로 앞이라 접근성이 좋음. 그러한 공간을 부산에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됨.

(작품 및 소품 보관소) ‘(가칭)예술창고’와 같은 공간이 필요함. 전시나 공연이 끝나고 발생하는 소품, 의상, 작품 등을 처리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단체나 예술가들과 공유하고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좋겠음 (일종의 당근마켓). 부산시에서 현재 운영중인 다봄 홈페이지에 해당 플랫폼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겠음.

(공유 창고) 공용 창고 공간에 접수된 작품이나 소품 등을 리스트업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개하면 필요한 예술가나 단체 등에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레지던시보다 더 시급한 요구 사항이었음. 또한 창고형 공간 (예를 들어 빈 컨테이너

32) 스쿼트(Squat) : 빈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활용)에 작품 전시를 상설전처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음.

(공유 창고, 공동 작업실) 작품 도구나 소소한 재료를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쓸 수 있는 공유창고, 공유 공구 작업실이 매우 필요함.

[그림 32] (좌)가나 장흥 아틀리에 외부 / (우)가나 장흥 아틀리에 내부



© 가나아트파크



민간 예술창작공간 지원

(반자립형 창작공간) 작가들이 개인 작업실을 얻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공공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정책을 만들어서 작가들이 반자립형 공간 (렌트비 일부 지원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민간 창작공간 지원) 한 공간에 여러 장르의 예술인을 모두 모아 상주시키는 것보다는, 월세 지원금이든 창작 공간 지원금이든 냉난방 지원금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한 장르의 필요한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하는 것이 핵심임.

(민간 창작공간 지원) 어느 정도 레지던시를 경험한 작가들은 매번 이주할 필요 없이 안정적인 개인 창작 작업실을 선호함. 그런 점에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장기적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독일 베를린에서는 예술가의 개인작업실 월세의 50%를 예술재단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줌.

(장기 지원 창작공간 운영) 공공에서 몇 개의 공간을 사서 저렴한 월세의 방식으로 개인 작업실을 지원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민간 참여 활성화) 기업과 예술단체가 네트워킹하는 기회를 만들고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일종의 공유오피스 형태로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과 예술가들의 협업이 많아지면 좋을 듯.

(민간 레지던시 지원) 20년 전부터 민간단체 주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시각에서 볼 때 레지던시 관련 지원금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은 문제임.

(민간 레지던시 지원) 부산의 문제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레지던시가 너무 많음. 그리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매뉴얼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작가들이 부담을 많이 느낌. 공공에서 직접 레지던시 사업을 집행하기보다는 민간(개인, 예술가)에서 하는 것을 간접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음. 실제로 예술가들이 직접 기획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레지던시의 사례도 있음. 그러므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재단이 준비하는 대신, 민간(개인 혹은 예술가 단체)가 제안하거나 준비한 것을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함.

(민간 레지던시 지원) 공공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음. 지역에 좋은 예술공간들이 많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 많은데 굳이 재단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해서 사업할 필요는 없음.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민간 예술 사업이나 공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개인 창작공간의 지역 연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작업실이 개인의 작업실로 끝나는데 아니라, 그 지역의 예술가들과 개인 연습실 (작업실)들이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방법을 모색해주면 좋겠음.

창작공간 경험의 아카이빙 및 사후 관리

(입주작가 아카이빙) 과거에 레지던시를 입주했던 선배 예술가들에 대한 아카이빙이 전혀 되어있지 않음. 잘나가는 작가를 배출했지만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결국 그 공간의 자산을 남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예술창작공간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전통을 기록하고 업적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므로 아카이빙 등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함.

(레지던시 이후 연계) 레지던시 기간중에 기획사나 기획자, 평론가과의 매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임. 또한 레지던시가 끝난 뒤 재단이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지 않아서 아쉬움. 프로모션으로 이어지지 않음.

(레지던시 이후 네트워크) 레지던시를 통해 만들어진 작가들 간의 네트워크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작업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외 레지던시의 경우 alumni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음. 예를 들어 홍티아트센터 레지던시 참가 작가들이 이후 지속적으로 네트워킹 활동을 하지 않음. 문화재단에서 홈커밍데이 등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

(창작과정의 기록) 촬영, 기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기존의 창작지원비에는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지만 인터뷰, 촬영, 기록, 아카이빙 등은 예술창작 지원의 중요한 측면인데 그동안 간과되어 왔음 (레지던시 입주 작가가 창작을 하면 그것에 대한 촬영이나 기록은 주최 측 혹은 운영자가 맡아서 해주는 것이 중요함).

(아카이브 기능) 아르코 미술관에 가면 아카이브실이 있음. 부산에서도 예술가를 찾고 싶을 때 이런 아카이브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현대미술관에 미술 도서관이 있지만 지역의 아티스트들을 모아놓지 않았음. 부산 레지던시 공간에 입주한 예술

가들 아카이브를 오프라인으로도 볼 수 있으면 좋겠음.

(아카이빙) 작가들의 작품은 언제 누구에게 pick이 될 지 알수 없음. 작가들은 항상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함. 그렇기에 작가들은 항상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놓아야 함. 또한 거의 대부분의 작가들이 나중에 개인전, 회고전 등을 할 때 모아놓은 데이터(아카이빙)가 없음. 홈페이지, 인스타 등 개인적인 작업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자료의 아카이빙을 많이 해놔야 언제든지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음. 재단 차원에서 작가들의 포트폴리오 준비와 아카이빙 작업을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창작공간 운영 방식 개선

(과도한 작가 관리 지양) 1년 단위의 회계, 출석 점검, 의무적인 주민소통 프로그램 참여, 자발적이지 않은 오픈 스튜디오 등 과도한 의무 부과와 결과 도출 중심의 관리 감독 방식으로 인해, 참여하는 작가들은 과중한 부담감을 느껴서 레지던시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창작작업에 좀 더 몰두할 수 있는 레지던시가 필요.

(과도한 작가 관리 지양) 레지던시의 핵심은 작가가 용기를 내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응원하는 방향이 중요함. 그렇기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에서 입주 작가에게 과도한 과제를 준다거나 또는 감시 감독의 눈빛으로 작가를 바라본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주의하면 좋겠음.

(작가 주도 자율성 부여) 해외 레지던시의 경우, 그곳에서 정해놓은 어떤 틀에 맞춰서 작가를 뽑아서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 스스로 결과물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도와주는 방식이 많음.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모아놓고 획일적인 플랜을 짜는 방식이나, 미리 정해진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 지원사업의 한계임. 레지던시를 기획할 때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신경 쓸 필요 있음.

(작가 주도 자율성 부여) 독일의 아뜰리에 프랑크푸르트나 경기도 양주 (장흥 가나 아뜰리에)처럼, 레지던시에서 작가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과업과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작가별로 원하는 방식대로 유연하게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함. 작가들이 월세를 지불하지만 컬렉터를 연결해서 작품을 판매하고 소득이 생기게 도와주는 등 지속가능한 창작 공간의 시스템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창작공간 접근성) 접근성이 중요함. 한국의 레지던시는 버려지고 쓸모없는 공간을 활용하는데, 해외의 경우는 밝은 분위기의 좋은 공간, 편리한 입지의 레지던시가 많음. 그런 공간과 분위기에서 네트워킹 친교,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기 쉬움.

(작가 자율형 창작공간) 해외 레지던시의 경우, 그곳에서 정해놓은 어떤 틀에 맞춰서 작가를 뽑아서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 스스로 결과물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도와주는 방식도 많음.

(유연한 운영방식) 레지던시 운영자 (담당자)들의 경직성도 문제임. 예술작가들을 대상을 하는 사업에서 무조건 매뉴얼대로만 하면 안됨. 원칙과 규정을 유연하게 해서 담당자들에게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함. 담당자의 결단이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매뉴얼대로만 하고자 하는 담당자들의 경직성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봤음.

(운영자 역량 강화) 또한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함. 예를 들어 입주 기간 중에 해외 레지던시 참여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담당자의 교체로 인해 참가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약 2년마다 보직이 바뀌는 순환보직 때문에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구조임. 레지던시 담당의 경우 작가들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곳인데 담당자들이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작가들의 필요와 요구사항 등을 이해하기 어려움. 레지던시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자(실무자) 관련 교육도 필요함.

(자율적 운영 구조) 자율성을 중시하는 레지던시가 작가에게 만족도와 효율성이 높음.

(레지던시 운영 방식 다각화) 작가가 특정한 성격의 작업을 하고 싶으면 그 작업이 가능한 지역 예술가와 연습실 (혹은 작업실)을 갖고 있는 작가와 매칭해서 작업하도록 도와주고 레지던시에서는 숙소만 제공하는 식으로도 레지던시를 운영할 수 있음.

(전 세대를 아우르는 레지던시 공간) 공식적이진 않지만 레지던시 선발 시에 나이 차별이 느껴짐. 레지던시 공모에 나이 제한은 없어야 함. 외국의 경우 70대도 지원 가능함.

(경력에 맞는 레지던시 다각화) 경험과 경력이 없는 신진작가들이 레지던시 지원하기 매우 어려움.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레지던시가 필요한 젊은 작가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책 (별도의 레지던시 지원책) 또는 그들에게 다양한 레지던시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함.

(레지던시 다각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반드시 공간 제공이라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

인바운드형 레지던시 공간 운영

(인바운드형 창작공간) 휴양 개념의 레지던시에 와서 포트폴리오 소개, 사교활동을 통해 교류, 네트워킹을 희망하는 작가들이 많음. 부산은 그런 면에서 매력적인 도시임. 그런 점에서 국내의 좋은 작가와 해외 작가들이 부산의 단기 레지던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숙식 포함) 늘어나면 좋겠음.

(기획자 대상 인바운드 레지던시) 해외 기획자를 위한 오픈콜-레지던시 필요. 해외 기획자를 위한 오픈콜-레지던시 필요. 부산지역 내에서 기획자를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으로, 타지의 기획자들이 부산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인바운드 레지던시) 국내외 좋은 작가들이 부산에 방문(단기 방문이라도)할 수 있는 유인책 필요.

(예술가 위케이션) 요즘 유행하는 위케이션(워크+베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 소멸 지역에 외부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의 공간을 오픈해서 관광객들이 오게 하듯이, 부산지역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그런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임. 예술가들이 여행오듯이 방문해서 그 레지던시 안에서 다른 작가들과 네트워킹하면서 자연스럽게 영감을 얻고 편안하게 즐기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부산만이 가진 고유한 레지던시가 더 많이 알려지면 부산지역으로 많은 작가들이 올 것이라 생각함.

장르별 특화 창작공간 확대

(장르별 창작공간 다각화)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외의 다양한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문학 장르의 작가들에게는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음. 또한 그들은 네트워크 보다는 고립된 공간을 더 선호함. 공간에 참여하면 과업/숙제의 부담감 때문에 개인 작업실을 선호함. 그들에게는 창작 공간을 제공하기보다 작가들이 각자 알아서 창작 공간을 구하게 하고 일정부분 월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임.

(장르별 창작공간 다각화) 레지던시를 설계할 때 장르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 특히 문학 분야는 따로 레지던시를 설계할 필요 있음. 타장르와 함께 레지던시에 입주한 문학 작가들은 타장르의 소음 문제때문에 야간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음.

(장르 특화 창작공간) 장르와 작업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이 중요함. 예를 들어 먼지 등이 발생하는 창작활동은 실내에서 작업하기 어려움. 각 장르에 맞는 장비와 공간이 필요. 분야에 맞는 특화된 창작공간이 필요함.

(장르 특화 창작공간) 공연예술에 필요한 마루바닥 등의 시설이 좋은 연습실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음.

(장르별 특화 창작공간) 장르별 공간 활용의 특성을 고려한 레지던시가 설계되어야 함. 장르별로 스튜디오 사용 방식에 차이가 있고 레지던시를 설계할 때 그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

(장르 특성 고려한 복합 창작공간)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함께 입주할 경우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고려하여 창작공간 구성 필요.

레지던시 프로그램 다양화

(입주기간 중 프로그램 활성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제공받는 장점은 있으나, 적절한 프로그램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제로 고립이 되어 버리는 단점이 있음. 창작의 도우미 역할, 내 창작물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 등, 레지던시에는 실질적으로 작가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동료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필요함.

(레지던시 프로그램 다양화) 연령대, 목표 차이 등에 따른 세분화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레지던시가 필요함. 교육, 봉사나 지역 커뮤니티를 함께 하고 교육 활동을 통해서 생계에도 기여할 수 있음. 재능 기부뿐 아니라 작가로서의 재능도 증명하고, 시민들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통해서 수익 창출과 더불어 작업실도 가질 수 있는 레지던시의 형태도 있음. 창작 작가와 예술교육 전문 활동작가를 분리 선발할 수도 있음.

(기획자, 평론가 등 참여 기회 확대) 예술 창작에서의 분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함. 부산지역에서는 기획자와 평론가들이 많이 부족함. 기획자 평론가들이

있어야 건강한 예술이 존재할 수 있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함 (예: 인천 연수구 레지던시의 기획자와 예술가 페어링 지원).

(지역 연계 활동 강화) 지역의 작가들에게는 타 지역의 예술가 또는 시민들에게 자기 작품을 소개할 기회가 적음. 부산 비엔날레 기간에 맞추어 창작공간 페스티벌과 같은 것이 생긴다면 관광효과도 있을 것임.

(예술가 역량강화) 타지의 작가들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레지던시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예술 기획자, 창업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 프로그램도 좋을 것임.

소개하고 싶은 레지던시

부산진구에서 공유오피스 위워크와 협력하여 예술가들에게 제공한 공유 오피스는 스타트업 기업들과 예술가들의 협업 기회를 주어서 좋았음.

연희문화창작촌의 경우 레지던시 후 발표할 수 있는 플랫폼(웹진)이 훌륭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호텔 레지던시 프로그램. 1년 내내 작가들에게만 빌려주는데, 부산에도 빈 호텔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민간과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끌어주면 좋겠음.

미국의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센터(IWP)나 영국의 노리치작가센터(NCW: National Centre for Writing)의 사례처럼, 대학과 협업을 하는 방식을 고민해보면 좋겠음.

부산콘텐츠문화콤플렉스는 콘텐츠 기업 입주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업 육성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함.

스코틀랜드 코브 파크(Cove Park) 레지던시의 경우 입지가 나쁘고 교통이 불편하지만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어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음. 그런 점에서 부산 지역의 레지던시가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할지, 부산만의 독특한 특색으로 무엇을 내세워야 할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3. 조사 결과 종합

그간 예술창작공간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혼재된 관점들을 구분하고, 새로운 형태의 예술창작공간 구상을 위해서 이번 표적집단 면담조사(FGI)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일상적 예술창작공간과 일정 기간 동안 예술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레지던시형 창작공간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예술인 복지 차원의 안정적인 창작공간 지원 정책과 예술활동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레지던시형 창작공간 지원 정책에 대한 이원화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일상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창작공간 확충 및 민간 창작공간 지원 확대

우선적으로 창작공간의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작공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역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업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공동 작업실을 운영한다면 예술인과 예비예술인간의 교류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빈집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의 활용방안으로 예술가 레지던시를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유휴 공간을 공공에서 직접 매입하여 예술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장기임대를 하는 소위 반자립형 예술창작공간을 확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일상적 창작환경은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 장기적인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공간이 필요하거나 협업을 원하는 예술가들에게 지역 내 사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영역

의 작업실들을 매칭할 수 있도록 맵핑 네트워크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참여자들은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일상적 창작공간의 경우 공공에서 제공되는 창작공간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상적 창작공간의 확대를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개인 작업실, 공동연습공간과 같은 민간 예술창작공간에 대하여 임대료 지원 등의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레지던시형 창작공간에 있어서도 공공 운영 창작공간 외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형 창작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공공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형 창작공간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창작공간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하면서 레지던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더 많은 예술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주제로 레지던시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 창작공간이 활성화되는 것은 결국 지역 예술인들에게도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변화하는 활동 유형을 반영한 창작공간 유형의 다각화

참여자들은 부산지역의 창작공간의 유형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장르별로 창작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화된 운영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창작공간을 이용하는 예술인들은 창작에 집중하는 목적 외에도 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나 지역에 대한 리서치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한다. 도심형 창작공간의 특성이 다를 수 있고 도시 외곽에 위치한 창작공간의 특성 또한 다를 수 있다. 특정 장르에 집중하는 창작공간과 전 장르를 포괄하는 창작공간도 그 목적과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창작공간의 예시로 창작의 전 과정을 구현해볼 수 있는 제작소형 창작공간이나, 창작에 필요한 도구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작업실, 작품 및 소품을 보관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창고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와 예술교육 등의 활동을 지향하는 창작공간의 유형도 소개하였다. 창작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예술기업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형 종합 공간과 대규모 예술촌형 창작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특히 공유 오피스의 경우 지역 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도모하기 위한 거점 플랫폼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그림 33] 아이오와 국제창작센터 외관과 워크숍 장면



© 아이오와 국제창작센터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현재 부산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술창작공간들이 대부분 시각예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 공연예술 등에 특화된 예술창작공간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연예술의 경우 공동연습실이나 큰 규모의 구조물, 무대 제작까지 가능한 종합적 형태의 예술창작공간이 필요하다. 문학의 경우 일상적 집필을 위한 공동작업실과 집중 작업을 위한 작은 규모의 독립된 작업실을 보유한 창작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 예술창작공간이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청년 예술가 또는 원로 예술가처럼 창작공간 레지던시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 이용기회 제공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창작자 외에도 기획자, 평론가,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창작공간의 성과들이 지역 대내외로 확장할 수 있도록 부산 비엔날레와 같은 국제적 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외 예술가 교류 기회 확보를 위한 인바운드형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확대

예술인들이 자신의 작업실이 있음에도 레지던시형 예술창작공간을 찾는 것은 창작의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작가들과의 연결망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의

도도 있다. 부산지역 예술인들이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레지던시 경험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타 지역이나 해외 예술인들이 부산에 머무르면서 지역 예술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지역 예술계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부산지역에서 국내외 예술인들과의 교류를 이어갈 기회를 만드는 것은 네트워크의 확산 차원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산 지역에서 활동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인바운드형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제안을 주었다. 특히 최근 각 광받고 있는 위케이션 개념을 예술계에도 적용하여 국내외 예술가들이 일정기간 부산에서 체류하면서 지역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술인 뿐만 아니라 평론가, 기획자,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예술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산 지역 작가들이 타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창작공간 이용 경험 예술가들에 대한 아카이빙 및 후속 조치 확대

레지던시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일부 레지던시 공간에서 입주작가에 대해 아카이빙과, 레지던시 종료 후에도 소위 졸업생 동문(alumni)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충실한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주었다. 입주작가 홈커밍데이 등을 통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작가와의 연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입주작가에 대한 아카이빙의 경우 예술창작공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간 운영 경험의 축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입주 작가 후속 연계 프로그램 또한 예술창작공간이 예술인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창작공간의 예술적 성과의 연속적인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레지던시에 입주한 기간동안 수행하는 활동들에 대한 아카이빙이나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주 작가들의 창작작업에 대한 영상기록이나 인터뷰 등을 축적할 수 있다면 작가 개인에게도 창작공간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창작공간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프로그램 다각화

공공 운영 창작공간의 경우 경직된 운영 방식의 유연화를 제안하였고, 전문적인 운영자 혹은 코디네이터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정형화된 패턴의 창작공간 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입주작가들의 자율적인 기획을 반영한 운영 방식을 제안하였다. 전반적으로 창작공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인 공간의 노후화 부분도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보수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입주자 관리에 있어서도 획일화된 방식보다는 창작 주기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FGI 참여자들은 창작공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평론가 및 기획자 매칭 등 입주작가의 성장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입주작가 대상 개인전 및 단체전 참여, 오픈스튜디오, 시민 대상 페스티벌 등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공공운영 예술창작공간의 경우 입주작가 대상 프로그램이 패턴화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타 지역의 일부 창작공간의 경우 예술인과 기획자, 연구자를 매칭하여 레지던시를 운영하여 입주시기 동안 예술경험의 성장 기회를 도모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처럼 공간별로 특화된 입주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차별화된 창작공간 운영 전략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34] 덴마크 HAUT 예술극장의 다양한 실험과 공연 장면



© 덴마크 코펜하겐 HAUT 예술극장



IV.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1. 문제의식 및 주요 방향
2.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IV.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제안

1. 문제의식 및 주요 개선 방향

1) 제안 개요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예술창작공간의 사례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몇 가지 문제의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간 예술인들의 창작과 관련하여 지원정책은 주로 창작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예술창작환경 전반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창작준비부터 유통 등의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예술활동 전 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 정책 또한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정책이다. 부산광역시 차원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운영 지원하면서 지역 예술인의 창작에 필요한 공간 지원을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들어 예술창작공간이 일시적인 창작 경험 제공을 넘어, 이제는 지역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으로서의 창작공간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예술창작공간의 지원 정책 또한 이원화된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앞선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예술창작공간의 절대적 공급 부족

현재 부산지역의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10,244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2024년 현재 부산지역에서 운영되는 예술창작공간이 약 17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2024년 실시한 「2024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예술활동 시 사용 공간의 형태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4.1%가 거주공간 내 개인 창작공간을 이용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51.6%는 거주공간과 분리된 개인창작공간 혹은 공동창작공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레지던시 창작공간은 응답자의 3.3%가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활동분야 별 편차가 있으나 거주공간 내 개인 창작공간을 사용하는 등 안정적인 예술창작환경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예술활동에 필요한 창작공간 지원 정책으로는 임대료 등 민간 창작공간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공동 창작공간 확대를 우선 순위로 응답하였다. 창작공간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지만, 민간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 또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참고](#)

예술인들은 레지던시형 창작공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민간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창작공간 등 안정적인 창작환경에 필요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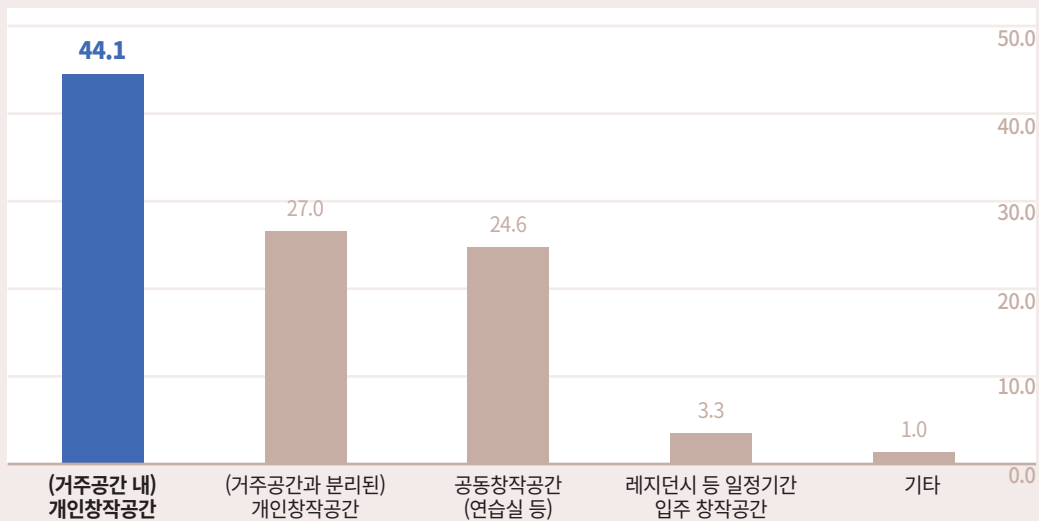
예술창작공간의 양적인 공급 확대 제안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을 양적으로 확대 조성하는 것이다.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문화기본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근거한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예술창작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 신규로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휴공간을 활용한 임시적인 활용이나, 기존의 시설에 예술창작공간 활용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창작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림 3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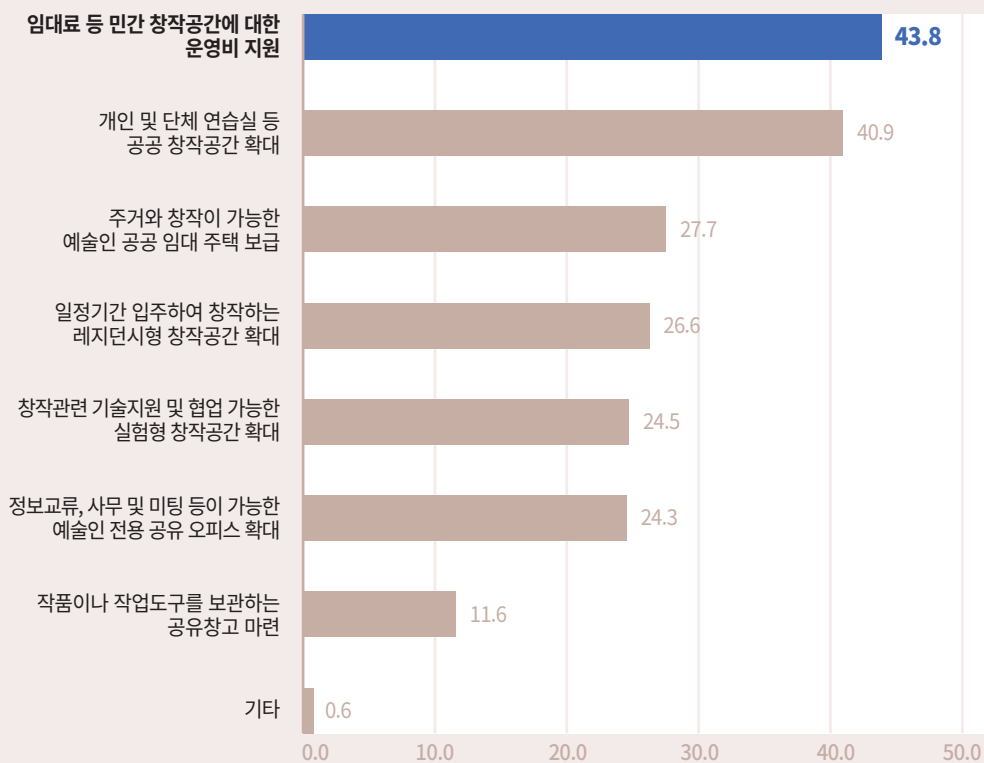
시각예술 중심의 창작공간 운영으로 장르별 편차 발생

현재 부산지역에서 운영되는 예술창작공간의 장르별 비중을 살펴보면 시각예술 중심 창작공간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반면, 문학 및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은 제한적이어서 분야별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대본작업을 위한 집필공간, 공동 작업을 위한 연습실과 더불어 무대를 제작하여 직접 공연해 볼 수 있는 쇼케이스형 작업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필요하다. 문학 분야의 경우 일상적인 집필 공간과 더불어 탈고를 위한 집중 집필 공간 등 시간적 차원에서 공간 활

[그림 35] 2024 부산예술인실태조사 중 예술활동 시 사용 공간의 형태 (단위:%)



[그림 36] 2024 부산예술인실태조사 중 예술활동에 필요한 창작공간 지원정책 (1+2순위, 단위: %)



용이 변화할 수 있다. 그 외 복합 장르의 경우 새로운 실험적 창작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문학, 공연예술 등 장르별 특화 창작공간 및 복합장르 예술창작공간 조성

시각예술분야 외에 문학과 공연예술, 복합예술장르 종사자들을 위한 창작공간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복합장르 예술창작공간은 여러 예술 장르의 교류와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단일 장르의 작품이 아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예술작품을 생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전 장르 입주가 가능한 공간인 감만창의문화촌은 입주작가들에게 개인 작업실을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공연예술 분야 입주자를 위해서는 개인 작업실 외에도 5층의 공연예술연습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연예술분야 예술인들이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창작공간 특성 및 지향점 중복으로 공간별 특성화 부족

현재 부산지역의 예술창작공간들은 대부분 작품 창작과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간별로 차별화된 목적이나 방향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일정한 입주 기간동안 개인 전시회 기회를 제공하고, 작가들 간 네트워크, 비평가 매칭 등 패턴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공간들이 대다수이다. 대부분 공간들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최장 3년 정도로 입주기간을 운영하다 보니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숫자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창작공간에서는 집중 창작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서 교류하고, 낯선 지역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활동 등도 이루어질 수 있다. 입주작가들의 작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커뮤니티 활동이 중요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실험적 예술활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맞춤형 창작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한 기간동안 집중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입주하는 기본적인 창작공

간 외에, 작품 준비를 위한 사전 미팅 및 리딩 공간, 연습공간, 사전 리서치를 위한 연구공간, 1개월 미만의 단기 집중 창작실 등 창작공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술인들이 창작작업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공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표와 형태로 운영되는 창작공간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창작공간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예술인의 수요와 창작의 전 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특색있는 창작공간 조성

우선적으로 창작공간별로 특화지점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홍티아트센터의 경우 시각 예술 분야의 작가들이 집중적으로 창작해 볼 수 있는 안정적인 기간을 제공하고, 전시실의 층고가 높아 작가들이 시도해보기 힘들었던 대규모 작품을 제작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감만창의문화촌과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의 경우 시각예술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문학 분야 예술가들도 함께 입주하고 있어 예술가들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처럼 집중창작, 리서치, 네트워크, 커뮤니티 활동, 예술 비즈니스 등 창작공간별로 차별화되는 특징과 지향점을 도출하고, 그에 맞게 운영방식을 다각화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술창작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장르별로, 용도별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획일화된 창작공간보다는 다양한 형태를 반영한 창작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집중 창작을 위한 공간, 공동 작업 공간, 대규모 무대 제작 및 기술 활용 실험이 가능한 공간, 단기 활용 공간 및 장기 임대 공간, 공유 오피스 등 창작활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한 여러 형태의 예술창작공간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

부산지역 외 예술인 레지던시 부족으로 지역 내 예술 교류 기반 부족

부산지역에는 타 지역 및 해외 거주 예술인들을 위한 레지던시 공간은 매우 부족하다.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작공간 중 타 지역이나 해외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은 홍티아트센터, 예술지구P, 오픈아츠스페이스 머지가 있다. 부산에 근거지가 없을 경우 체류를 위한 숙박시설도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숙박이 용이하지 않는 창작공간에서는 타 지역 예술가의 레지던시를 운영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부산의 예술인들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

의 예술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다. 물론 부산지역 예술가들이 타 지역 레지던시에 참여하여 교류 기반을 넓힐 수 있으나, 부산지역에서 교류의 판을 만든다면 더 많은 예술인들이 네트워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과거에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에 해외 예술인들이 잠시 머무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교류의 물꼬를 텃던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해외공연을 다녀왔던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교류와 협업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타 지역 및 해외 예술인들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내외 우수 예술인들의 체류 기회 제공을 위한 인바운드형 예술창작공간 확충

국내외 예술인들이 부산을 찾아올 수 있게끔 인바운드형 예술창작공간 확충이 필요하다. 숙박공간이 없는 기존의 창작공간의 경우 공간 인근의 숙박업소들과의 협력하여 일시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해볼 수 있다. 최근 부산은 업무와 휴식을 함께 하는 위케이션에 최적화된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예술인들을 위한 소위 아트케이션(art-cation)을 운영하고 기간 중에 부산지역 예술인들과의 교류를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전북 완주에서는 <예술인 완주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완주군의 유희공간과 작업실이 필요한 예술인을 연결하고 있다.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공간과 작가 간의 네트워크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창작공간 외에 지역의 유희공간에서 일시적인 인바운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경험은 부산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지역의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인바운드형 창작공간은 부산지역 예술인들에게는 교류 및 타 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부산지역 전체 차원에서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

창작공간 공공의존도 심화 및 자유로운 창작활동 한계

부산지역의 예술창작공간의 대다수가 지자체나 문화재단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공공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예술창작공간들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공에서 예

예술창작공간을 양적으로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민간 영역에서 예술창작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전반적인 창작환경 개선에 필요하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 운영되는 예술창작공간은 담당자들의 순환근무로 인하여 창작공간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민간 예술창작공간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경험의 축적이 가능하다. 전반적인 예술창작공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예술창작공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민간 예술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을 통해 균형있는 예술 생태계 조성 기여

민간 예술창작공간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도 해당되지만, 개인 작업실의 형태로 운영되는 공간도 포함될 수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지원 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의 개인 작업실에 대해서도 일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개인 예술인 작업공간을 다른 예술인들과 일정 시간을 공유할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공간의 공유 기회는 작업실을 운영하는 예술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동료예술인들과 네트워크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민간에서 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할 경우, 초기 비용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균형을 이루는 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2.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제안

1) 제안 개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은 변화하는 예술창작 환경 반영, 지역 예술인의 수요 고려,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술창작공간의 확충은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기회 보장 뿐만 아니라, 국내외 예술인들 간의 교류를 통한 도시의 문화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이다.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에서도 예술창작공간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예술창작공간은 예술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6]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제안 개요

비전	창작공간으로 예술하기 좋은 도시 부산, 예술로 힘이 되는 부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예술창작 환경을 반영한 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 지역 문화환경 및 예술인의 수요에 필요한 창작공간 보급 · 시민의 문화향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작공간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실행 과제	1 예술창작공간의 유형별 다각화	2 글로벌 허브도시 예술교류 창작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 장르별 특화 예술창작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네트워크 창작공간 조성 · 유휴공간 활용 예술창작 영커시설 조성
	3 민간예술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4 지역사회 연계 창작공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예술창작공간 운영 지원 · 민간예술창작공간 관련 제도적 기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 문화공간 활용 예술창작기회 제공 · 예술창작공간 활용 지역사회 활성화

[그림 37]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개요



앞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의 목표를 총 세가지로 설정하였다. 우선 급변하는 예술창작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통적인 레지던시 위주의 창작공간 사업에서 나아가 일상적 창작 및 교류 협력, 예술 비즈니스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창작공간의 유형을 다각화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역 문화환경 및 예술인의 수요에 필요한 창작공간을 공급해야 한다. 예술창작공간 지원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정책적 당위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술인에게 필요한 창작공간을 점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의무가 되었다. 또한 창작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예술인 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결국 지역 문화환경 전반의 개선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작공간 지원 정책이 시민의 문화향유 및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술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가 지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창작공간이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의 목표를 가지고 총 4가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우선 <예술창작공간의 유형별 다각화>를 추진하고, 시각예술에 치중되어 있는 창작공간의 유형을 확장하여 장르별 특화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실행과제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부산이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문화적 실천을 위하여 <글로벌허브도시 예술교류 창작공간 조성>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인바운드형 예술창작공간 확충을 통해 국내외 예술인 간의 교류 기반을 부산지역에 마련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하여 예술가 네트워크 창작공간 조성 및 유희공간 활용 예술창작 앵커시설 조성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예술창작공간의 공공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예술생태계의 안정적인 순환을 위하여 <민간예술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민간예술창작공간 확대를 위한 운영 지원과 제도적 기반 확보를 실행과제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연계 창작공간 활성화 전략>을 설정하여 창작공간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생활권 문화공간과 연계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관 분야 협력 예술창작공간 운영 등의 실행과제를 설정하였다.

2) 세부 추진과제

추진전략 1. 예술창작공간의 유형별 다각화

예술창작공간의 양적인 공급 확대 제안

변화하고 있는 예술창작환경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술창작공간을 유형별로 재구조화하여 운영방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부산지역에 부족한 유형의 예술창작공간은 신규로 조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기존 운영 예술창작공간 유형화

우선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산지역의 공공운영 예술창작공간을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구조화하고, 그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제안해볼 수 있다.

[표 7] 유형별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운영 프로그램 예시

운영목적	주요 공간	운영 프로그램 예시
창작집중형	홍티아트센터 홍티예술촌	· 평론가 매칭, 연계 전시, 국내외 비엔날레 아트페어 연계 등
네트워크형	또따또가	· 예술가 네트워크, 입주 예술가 간 협업 지원 등
복합공간형	감만창의문화촌	· 주민 참여 프로그램, 전시 및 오픈데이 등
지역 커뮤니티형	반딧불이 창작공간 온그루	· 지역 커뮤니티 연계 예술활동
팝업스토어형	용두산 미술의 거리 감천문화마을	· 예술작품 판매 오픈마켓 운영, 팝업 전시 등
융복합 리서치형	-	· 융합 연구 워크숍, 예술가 간 협업 프로그램 등
비즈니스형	-	· 창업 보육 프로그램, 런칭 프로젝트 피칭 기회 제공 등
공유오피스형	-	· 단기간 입주 프로그램, 일상적 창작활동 기회 제공

홍티아트센터 및 홍티예술촌은 창작집중형 예술창작공간으로 특화하면서 기존의 평론가 매칭, 개인전 및 연계 전시 프로그램 외에도 국내외 비엔날레 및 아트페어 연계, 입주작가 아카이빙을 추가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획

자, 연구자, 평론가 매칭을 통해 입주작가에 대한 브랜딩 전략을 구사하여 시각예술분야의 우수한 창작산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홍티예술촌은 신진 청년작가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방식을 신진작가 쿼터제로 운영하여 신진작가와 중견작가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도 도모해 볼 수 있다.

또따또가의 경우 여러 활동 분야의 예술인 및 기획자가 참여 가능한 창작공간이다. 예술인 외에도 기획자, 활동가들의 입주가 가능하여 입주 작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부각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작가들의 네트워크나 커뮤니티 활동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인 참여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입주 예술인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 입주 예술인들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여 예술창작의 영역을 확장하는 시도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창작공간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따또가처럼 활동분야를 전 예술영역으로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만창의문화촌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활동도 적극 고려할 수 있는 복합공간형 예술창작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감만동 주민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도 했고,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지역의 기억을 기록하면서 커뮤니티 기반 활동에 많은 경험을 축적한 창작공간이다. 물론 현재는 지역 주민 이주로 인하여 일상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감만종합복지관과의 협력 활동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공연예술연습공간을 운영하고 있어 공연예술장르 예술인들에게도 유용한 공간이기도 하다. 감만창의문화촌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입주작가 개인 공간 외에도 예술인 공유 오피스와 같이 예술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창작실을 별도로 운영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및 활동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전역에서 운영 중인 반딧불이 창작공간과 망미동 비콘그라운드에 위치한 온그루 창작공간은 지역 주민과의 연계 활동에 특화된 운영이 가능하다. 반딧불이 창작공간은 지역의 유희공간을 기부받아서 운영되는 데 입주 예술인들의 커뮤니티 대상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입주 창작공간인 온그루의 경우 장애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가 가능하다. 특히 예술교육과 관련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적극적인 소셜믹스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용두산 미술의 거리 및 감천문화마을에 위치한 창작공간들은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작가들도 소품이나 굿즈 형태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작품 판매 플랫폼을 함께 운영해볼 수 있다. 시민들이 쉽게 예술인의 창작활동 과정을 관찰하고, 예술작품을 감상 및 구매해 볼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를 함께 운영하여 예술인들의 수익 증대도 도모해볼 수 있다.

▶ 융복합 리서치, 비즈니스, 공유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예술창작공간 조성

현재 부산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예술창작공간의 경우 신규로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리서치형 예술창작공간의 경우, 예술가뿐만 아니라 연구자, 문화활동가, 기획자 등 예술 분야 전반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체류비와 연구비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핀란드의 코네 재단(Kone Foundation) 사리 레지던시(Saari Residence)는 연구자 및 비평가에게 핀란드 역사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7,400유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학술 연구와 예술을 결합한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수여하는 오픈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예술과 연구가 결합된 혁신적인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융복합 창작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예술 창작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MIT 미디어랩’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술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창작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아트코리아랩>의 경우 대표적인 융복합 창작 및 비즈니스형 예술창작공간이다. 이 공간은 장단기 입주 공간 뿐만 아니라 공유오피스, 실험실 및 블랙박스형 쇼룸, 시제품 제작실 등을 구축하여 예술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는 예술인들과 관련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현재 17개의 예술 관련 스타트업 및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8] 아트코리아랩 내 쇼룸 및 시연장



© 아트코리아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술창작공간은 대부분 일정기간 입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더 많은 예술인들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예술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을 구현할 수 있는 창작공간도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예시사업으로 리서치형 예술창작공간과 공유오피스형 예술창작공간의 조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융복합 리서치형 예술창작공간 조성 - 부산 예술창작 실험실

예술 영역과 타 영역 간의 협업 프로젝트 구현이 가능한 융복합 리서치형 예술창작공간인 <부산 예술창작 실험실>은 과학관, 박물관, 대학 등 기존의 공간들과 예술인 간 협업 프로젝트를 운영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실험실 참여 기관들과 함께 워크숍 주제를 설정하여 주제에 적합한 예술인들을 선발하고 창작 워크숍을 진행한다. 1차 입주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여 단기 예술창작 워크숍을 통해 예술과 타 분야 간 접목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작품의 완결보다는 실험적 가능성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도출된 팀의 경우 1년 내외의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결과물이 완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은 예술 외 영역과의 조우를 통한 창작 영역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고, 참여기관에게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사회공헌 기회 제공과 더불어 예술

을 통한 새로운 관점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 공유 오피스형 예술창작공간 조성 - 부산 아티스트 라운지

부산 아티스트 라운지는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형 창작공간을 지향한다. 앞선 면담조사에서는 예술창작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자료 조사 및 협력 예술가 미팅, 간단한 서류작업 등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런 상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여러 활동 분야의 예술인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부산 아티스트 라운지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일상적 창작공간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부산 아티스트 라운지에는 미팅룸, 오피스 구역, 소규모 회의실, 자료실, 세미나실, 단기 작업실 등이 구비되어 부산지역 거주 예술인들이 사용 신청을 하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창업, 마케팅 등 예술 비즈니스 관련 교육 및 멘토링, 컨설팅을 통해 지역 예술 기업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술비즈니스형 창작공간으로서도 활용하도록 한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예술인지원센터(구, 예술청)는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동숭아트센터를 개조하여 대학로 극장 쿼드로 개편하면서 2층과 5층을 서울 예술인 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통합회원 가입을 완료한 예술인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 일부 공간은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예술가 전용 공유 오피스, 미팅룸, 프로젝트룸, 카페쿼드로 공간을 구성하였고,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률컨설팅, 심리상담,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술지원 정보 제공 등의 예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아티스트 라운지는 핵심 거점 공간 외에도 권역별로 소규모 위성 라운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되는 예술인행복플랫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예술인이 방문했을 때 예술활동 및 복지 관련 정보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장르별 특화 예술창작공간 조성

일정 기간 입주하여 운영되는 시각예술 중심의 창작공간 외에 공연예술, 문학 분야에 특화된 예술창작공간 개발 및 조성이 필요하다. 시각예술의 경우에도 개인 작업공간 외에 대규모 작업 기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작업실형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각예술 창작공간 외에 문학 분야와 공연예술분야에 필요한 창작공간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 문학 관련 예술창작공간 - 일상적 집필공간 및 집중 집필공간 이원화 조성

「2024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문학 분야 예술인들은 주로 거주공간 내 개인창작공간에서 창작활동을 한다고 응답했다. 창작공간 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일정기간 입주하는 레지던시형 창작공간 확대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문학 분야의 경우 집 또는 커피숍, 도서관 등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레지던시형 창작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문학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창작공간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간 조성 및 운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공유오피스형 예술창작공간도 문학분야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예술창작공간이 될 수 있다. 일상적인 집필을 위해서는 공용 작업실 형태의 창작공간이 필요하지만, 탈고 전후로 집중적인 창작활동을 위해서는 개인용 집필실이 갖춰진 창작공간이 필요하다.

최근 진행되는 문학 분야 예술창작공간 사업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학거점시설 상주작가 프로그램>이 있다. 도서관, 문학관, 서점과 같은 문학거점시설

에 작가가 입주하여 집필공간을 제공받고,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작가에게는 인건비와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에서 문학 향유 기회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프린스 호텔과 협력하여 호텔 공실을 문학작가 집필실로 활용하는 프린스호텔 협력 레지던시 ‘소설가의 방’에서는 집중적인 집필 작업이 필요한 신진 소설가들에게 4~6주간의 입주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역대 입주작가들이 참여하는 북토크를 진행하고, 프린스호텔을 주제로 집필한 테마소설집 <호텔 프린스>를 발간하는 등 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부터 시작된 문학창작실 이용 지원사업의 경우 전국의 문학창작실로 지정된 공유오피스를 매월 10일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부산지역에는 2개의 공간이 문학창작실로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부산에서도 문학 집필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나 거점들을 파악하여 시범적으로 문학 창작공간으로 운영해볼 것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공연장이나 복합문화공간과 문학분야 예술인을 매칭하여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집필 공간을 제공하고 소공연장과 복합문화공간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도 구상해 볼 수 있다.

[그림 40] 소설가의 방



© 서울프린스호텔

[그림 41] 테마소설집 발간 북콘서트



© 채널에스

▶ 공연예술 관련 예술창작공간 - 공연예술활동지원센터 및 공연제작실험실 조성

현재 부산광역시의 조례 중에서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는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제7

조에는 ‘공연예술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다. 센터의 역할은 민간 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공연예술활동지원센터를 조성할 때 전반적인 창작과정을 시연해 볼 수 있도록 블랙박스 형 쇼케이스 공간, 단체연습실, 집필실 및 리딩룸을 함께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공연예술의 경우 공연 횟수와 기간이 축적될수록 작품의 질이 제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통 공연의 앞부분을 쇼케이스 기간으로 설정하여 직접 무대에서 시연해 보고 작품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험적인 공연을 올리기 전에 직접 무대를 제작해 보거나 짧은 쇼케이스가 가능한 창작공간이 있을 경우 작품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그림을 미리 그려볼 수 있다. 현재의 창작공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무대 제작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작품 무대 세팅이 가능한 층고가 높은 창고형 작업실이 조성된다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982년 프랑스 마르세이유에 설립된 거리예술과 공공 공간 기반 예술지원센터인 리우 뵘블릭 내 거리예술 전문 창작공간인 La cité des Arts de la rue는 36,000m²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에 조성된 예술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무대 제작실, 강의실, 연습실, 리허설 플랫폼, 자료실, 장비 소품 보관 시설 및 야외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어 거리예술창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림 42] 리우 뵘블릭 전경



© La Cité

[그림 43] 야외 작업공간



© La Cité

추진전략 2. 글로벌 허브도시 예술교류 창작공간 조성

예술인 네트워크 창작공간 조성

부산은 독특한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가진 글로벌 허브 도시이다. 이런 도시적 특성을 활용해 국내외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부산 외 지역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올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부산에서는 국내외 예술가들이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하며, 부산 지역 예술가들조차 교류의 기회가 제한적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국제 레지던시는 매우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해외 예술가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외 예술가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창작 및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해 예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성 추진 중인 이기대 예술공원 내에 리트리트(retreat)형 레지던시 공간 운영을 제안한다. 예술가들이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유수 예술가들이 부산지역 예술가와 협력하여 창작 및 리서치 등을 할 수 있으며, 레지던시가 종료된 이후에도 부산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경우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제안을 통해 부산은 글로벌 예술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국내외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산지역 예술가들의 외부 활동 기회도 확대되어, 다양한 예술적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휴식을 취하며 근무를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인 워케이션(Work-cation) 제도가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소속기관이나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예술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술가들을 위한 맞춤형 워케이션 프로그램인 ‘아트케이션(Art-cation)’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이 일상적인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국내외 각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 간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활인구와 관계 인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가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 예술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제안사업 : 이기대 공원 내 체류형 예술창작공간 조성

세계적인 미술관 분관 건립 예정지인 이기대 공원에 국내외 예술가들을 위한 체류형 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기대 공원 내 풍피두 센터 부산과 연계하여 전시 예정 작가들도 입주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우수 예술인들의 부산지역 체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체류기간 중에 부산지역 예술인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전남 여수에서 GS칼텍스가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예울마루 장도 창작스튜디오는 여수시 장도에 위치한 독립형 건물 4동으로 구성된 곳이다. 섬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 내에 위치해 있어, 리트리트형 레지던시에 해당한다. 숙소와 작업실을 제공하고 창작금 지원, 평론가 매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울마루 공간을 활용하여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림 44] 장도 스튜디오 전경



© GS칼텍스 예울마루 창작스튜디오

[그림 45] 장도 스튜디오 작업실



© GS칼텍스 예울마루 창작스튜디오

▶ 제안사업 : 해외 네트워크 예술창작공간 - 빌라 부산(Villa Busan)

2024년 부산광역시와 프랑스 칸시가 협력하여 홍티아트센터 내에 프랑스 작가 입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임시로 홍티아트센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본격적으로 빌라 부산을 조성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해외 각 지역에 레지던시 공간을 운영하면서 자국 예술가와 현지 예술가들의 협력 기회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교토에는 빌라 쿠조야마(Villa Kujoyama)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 입주작가는 예술가 뿐만 아니라 요리사, 인문학자, 연구자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자국민

뿐만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프랑스 거주 경험이 있는 외국인 예술가도 참가 가능하다. 현지 예술가와의 공동작업을 목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양국 간 예술가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정기적인 공간 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지 예술가를 프랑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초청하기도 한다. 레지던시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레지던시 연계 활동이 가능하다.

[그림 46] 빌라 쿠조야마 전경



© Villa Kujoyama

[그림 47] 빌라 쿠조야마 프로그램



© Villa Kujoyama

▶ 제안사업 : 예술가 워케이션 - 아트케이션 운영

예술인들은 기업에 소속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이 많아서 기존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광역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재단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부산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도 추진해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바운드형과 아웃바운드형 아트케이션을 동시에 진행하여 부산지역 예술가들도 타 지역에서의 아트케이션을 통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강원도의 고성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트케이션 고성’을 추진하고 있다. 타 지역 예술가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고성군의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부산도 예술가들을 위한 특화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예술가들이 부산에서 창작 활동과 휴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산의 문화적 다양성과 예술적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휴공간 활용 예술창작 앵커시설 조성

부산은 과거에 신발 제조업, 조선업, 경공업 등 다양한 산업시설이 밀집했던 흔적을 갖고 있다. 현재는 원도심이나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빈 창고와 같이 폐산업시설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들을 예술창작공간 및 복합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면, 관광 명소로의 변모와 함께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사실상 이미 부산에는 이러한 우수사례가 있다.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F1963은 과거 대형 와이어로프를 생산하던 고려제강의 공장부지였는데,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2014년 부산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처음 오픈하게 되었다. 이후, 갤러리, 공연장, 서점, 카페, 레스토랑 등이 입점하면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의 폐산업시설을 발굴하고, 대규모 예술창작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창작에서 매개와 유통까지 하나로 집적하여 예술가와 시민들에게 예술창작 및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창작시설, 갤러리, 공연장, 시민 참여활동 공간 등을 포함하여 예술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작가들의 오픈스페이스, 상설 공연, 전시회, 팝업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예술창작 앵커 플랫폼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파리의 ‘라 페르메 뒤 뷔송 (La Ferme du Buisson)’은 과거 초콜릿 공장이었던 곳을 예술가 레지던시, 미술센터, 극장, 영화관, 음악당, 레스토랑을 한데 모아 창작부터 향유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이다. 특히 이 공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예술가들이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부산에서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대규모 폐산업시설을 예술창작 앵커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면,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제안사업 : 부산 예술창작공간 앵커시설 ‘금샘예술창작플랫폼’ 조성

부산의 금정구에 위치한 태광산업 부지를 활용하여 예술창작공간이 집적된 대규모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시설은 창작에서 매개, 유통까지의 모든 단계

를 집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구체적으로 창작시설, 갤러리, 공연장, 시민 참여활동 공간 등을 포함하여 예술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작가들의 오픈 스페이스, 상설 공연, 전시회, 팝업 마켓, 레스토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또한, 한 장르에 치우친 것이 아닌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주의 팔복예술공장은 옛 카세트테이프 공장부지를 개조하여,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과 전시장, 예술교육 플랫폼(예술놀이터, 예술학교, 예술대학), 카페, 도서관 등으로 조성됐다. 매년 관람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24년 특별전의 관람객은 4만 5천여 명을 넘기는 등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근대 개항기 건축물을 인천시가 2009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했다. 국내 예술인 뿐만 아니라 해외 예술가들도 찾아오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비평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다. 창작공간 이외에도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교육, 행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림 48] 팔복예술공장 전경



© 전라북도

[그림 49] 인천아트 플랫폼 전경



© 인천광역시

다른 지역에서 조성된 예술창작공간 앵커시설의 대부분은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향유거점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예술창작, 예술비즈니스, 예술교육, 공연 및 전시 등 부산 문화예술의 최신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추진전략 3. 민간 예술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민간 예술창작공간 운영 지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산지역에는 예술창작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 예술창작공간 확충 외에도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지원정책도 시행되어야 한다. 민간 예술창작공간의 경우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개인 작업실 공유를 통한 예술인 창작공간 활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 민간 예술창작공간 임대비 등 운영 지원

「2024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예술인이나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도출되었다. 예술인들이 민간 예술창작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가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예술창작공간 확충의 한계가 있다면 예술인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임대료 일부 지원이 유효할 수 있다.

현재 창작공간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이 시행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예술창작공간의 임차료를 최장 6개월간 지원하여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도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술 활동 기반 사업체와 경기도내 예술인 및 단체로 사업 대상을 이원화하여 창작공간의 임차료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고 예술인 및 단체를 위한 창작활동 대관료의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도 민간 예술창작공간의 임차료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예술창작공간을 다른 예술인과 함께 공유할 경우에 추가 지원을 하거나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여 예술창작공간의 공유 기회를 확장하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

▶ 빈집에 대한 임시적 예술창작공간 활용 시도 및 반자립형 예술창작공간 확충

영국의 애크미(Acme) 스튜디오는 1972년 설립된 비영리 자선단체로, 런던 내에서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스튜디오와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우선, 오래된 건물이나 비활용 공간을 장기 임대하거나 직접 구매 및 개조하여 스튜디오로 활용한다. 이러한 부동산 개발 모델은 상업적 임대료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민간 기업 및 예술 단체와 협력하여 추가 재정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공간 운영비를 보완한다.

현재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딧불이 창작공간의 경우 지역의 유휴공간을 기부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권역별로 반딧불이 창작공간이 운영되면서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입주자의 창작기회 제공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 중심으로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기부자의 의사가 변할 경우 공간을 반납하고 반딧불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반딧불이 창작공간의 규모는 중소형 작업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일부 공간은 매입하여 안정적인 반딧불이 창작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공공에서 매입한 창작공간을 예술인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임대료를 일부 부담하여 반자립형 예술창작공간의 조성을 제안한다.

전술적 도시주의(Tactical Urbanism) 차원에서 매입이 가능한 공간을 임시로 임대하여 예술창작공간으로 활용해 보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빈 공간의 여러 가능성을 실험해보는 시도가 될 수 있고, 창작공간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적합성을 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영구적인 목적으로 공간의 용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의 부담도 줄이면서 임시로 창작공간의 용도를 실험해본 다음 매입을 통하여 반자립형 예술창작공간을 확충해 볼 수도 있다.

예술창작공간 관련 제도적 기반 확보

▶ 민간 예술창작공간 지원 가능 법적 기반 마련 - 조례 제개정

인천광역시시는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의 소규모 문화공간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기서 정의하는 “작은문화공간”은 문

화예술분야의 창작, 연습 또는 발표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작은 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작은 문화공간 관련 심의를 위하여 작은문화공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에는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과 같은 작은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작은문화공간과 시민들의 예술활동을 이어주는 공간이지만, 예술인의 작업실과 시민들이 이어줄 수 있는 사업으로도 활용되어 왔다. 또한 인천문화재단은 창작거점을 두고 창작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예술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비용과 공간 사용료를 지원하고, 참여 예술 인간의 공동 협업 프로젝트도 지원하는 <점점점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공간들은 오픈스튜디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의 예술창작공간 관련 조례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가 있다. 여기서 정의하는 창작공간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다. 이 조례에는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창작공간을 감만창의문화촌, 홍티아트센터, 부평동 창작지원센터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다소 부족한 편이다. 인천광역시처럼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방법과 현재의 문화예술창작공간 지원 조례 내에 민간예술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할 수도 있다. 앞선 인천광역시의 사례처럼 민간예술창작공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발판으로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추진전략 4. 지역사회 연계 창작공간 활성화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는 생활권 내 시민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중요한 핵심 원칙은 도시를 시간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공간의 확충과 확장 중심으로 도시를 구

상했다면, 이제는 시간적 차원에서 도시의 환경을 살펴보고 밀도있는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소의 다기능적 활용이라는 추진방향이 도출되는데, 즉 한 장소를 시간적 차원에서 고찰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시간의 레이어를 쌓아가는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다.

예술창작공간은 예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지만 장기적 차원에서는 부산시민의 문화향유기회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공간 자원으로도 작용한다. 생각을 바꾸어 지역의 공간들에 예술창작기회를 더할 경우에 예술인의 창작기회 보장과 부산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전략은 부산지역의 각종 공간들을 활용한 예술창작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인과 부산시민을 연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

생활권 문화공간 활용 예술창작기회 제공

민간이 운영하는 생활권 단위 문화공간에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시간을 더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역의 소공연장, 서점, 작은 도서관 같은 곳에 예술인의 창작시간을 공유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더불어 소액의 지원금으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다. 공간의 개념을 더 확장하여 미술학원, 무용학원, 체육관과 같은 특정시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공간들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예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 민간 문화공간과 연계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의 레이어를 더하는 작업을 통해 문화공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시민의 문화향유기회도 증가할 수 있다.

▶ 제안사업 : 예술창작공간 공유 사업 ‘우리동네 예술창작실’ 운영

소공연장, 공방, 예술학원, 커피숍 등의 공간에 지역 예술인 공유창작실로 시간을 제공할 경우 공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예술창작실’ 운영을 고민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공연장의 경우 보통 운영자 외에 따로 공간에 상주할 인력이 없어 공간을 계속 열어놓는 것에 대한 고충이 있다. 공간의 특정 시간을 예술창작실로 제공하고, 창작실을 사용하는 예술가와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도 함께 지원하다

면 공간의 오픈 시간을 늘리면서 프로그램의 확장도 시도해볼 수 있다. 향후에는 꼭 민간 문화공간이 아니더라도 주민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권 기반 공공시설에서도 예술창작실 공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술창작공간 활용 지역사회 활성화

앞선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역문제와 연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술인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외로움, 고립과 같은 정서적인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한하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의 특별한 시선은 지역사회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술창작공간은 그 자체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지점에 예술창작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문화예술적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 영국의 웰컴레지던시의 Created Out of Mind 프로젝트는 UCL 신경과학 연구소와 협력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치매 관련 다학제간 접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경과학자, 예술가들이 치매환자들과 함께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치매환자들의 경험에 기반한 공연, 전시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신경과학자들은 예술활동을 통한 치매환자의 의료적 개선 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보스톤 어린이병원의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환자들을 위한 글쓰기, 시 창작, 비디오 아트 등의 예술 워크숍을 진행하고 병동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다섯번째 계절(The Fifth Season)’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의 정신건강 치료 센터인 알트레흐트(Altrecht)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운영된다. ‘다섯번째 계절’이라는 이름은 정신 건강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시간과 공간적 감각을 의미한다. 한 계절동안 정신 건강 문제를 주제로 하여 환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창작을 진행한다.

▶ 제안사업 : 병원, 파출소 등 공공기관 참여 커뮤니티 연계 예술창작공간 운영

대안공간 산수짜리가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산수짜리 파출소 레지던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 월산파출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레지던시 공간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3년 3명의 입주작가가 레지던시에 참여하였다. 예술가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오픈스튜디오, 지역주민 참여 워크숍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지역에도 방치되고 있는 파출소 건물이 지역마다 존재하고 있다. 이 공간을 임시적으로 예술창작공간으로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영구불멸한 사용 용도의 전환이 아니라 임시적인 전유 경험을 제공하는 레지던시를 운영하여 공간 운영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역에 흥물스럽게 남아 있는 공간을 임시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프로젝트형 레지던시를 진행한다면 공간의 새로운 쓸모를 지역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 병원 레지던시 또한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다. 현재는 예술인들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예술인들이 일정기간 상주하여 병원 환자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요양병원과 같은 정서적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병원의 경우 예술인 레지던시를 통해서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볼 수 있다.

▶ 제안사업 : 예술창작공간 활용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의 공공 공간과 연계하여 예술창작공간을 운영하는 방법 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술창작공간에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금천예술공장에서는 입주작가인 임흥순 작가의 주도로 ‘금천미세스’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8주 간의 예술 워크숍에 참여하여 과거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경험과 자신들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가지고, 결과물로 영화를 제작했다. 예술창작공간과 지역사회가 연결되어 새로운 예술 결과물을 도출한 유의미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지점은 입주작가들에게 커뮤니티 활동 참여를 강제해서는 안된다. 최근에는 예술창작공간의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예술가를 따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추구하는 예술창작공간의 경우 입주작가의 영역을 넓혀서 기획자, 예술교육가, 연구자, 활동가 등으로 확대하여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있게 꾸려갈 수 있다. 이처럼 예술창작공간의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로서의 깊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V. 결론

V. 결론

최근 들어 예술창작공간 사업을 폐지하는 지역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기존의 레지던시 형태의 창작공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부산지역의 예술창작공간 또한 새로운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획일화된 입주 기간과 프로그램이 고착화되어 예술창작공간이 그동안 예술계에 기여하였던 새로운 형태의 예술창작 기회에 대해서도 새로운 차원의 구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창작공간의 새로운 동향을 조사하였고, 예술창작공간 운영 및 입주 경험이 있는 예술인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부산지역에 부족한 예술창작공간 유형을 파악하고, 기존의 예술창작공간을 유형화하여 새로운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할 것과, 민간 예술창작공간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교류 거점으로서의 예술창작공간의 기능적 전환을 타진해보았다. 새로운 용도의 창작공간의 동향을 파악하고, 부산 전역의 예술창작공간을 필터링하여 전체를 조율하는 차원에서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작은 규모에서 실천가능한 제안들을 도출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시적인 전유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공간 사용에 대한 유연함과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 지역의 창작공간을 조사하면서 현재 부산이 당면한 창작공간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전 지역이 당면한 공통적인 도전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의 용도는 사용자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공간의 전환을 쉽게 이루어내기 어렵다. 결국 새로운 예술창작공간 확충 뿐만 아니라 공간의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유형의 창작공간이 수립된다면 기존의 창작공간 운영방식 또한 변화할 수 밖에 없다. 창작활동의 범위와 유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창작공간이 지원하는 예술인의 활동 범위도 더욱 넓어져야 한다. 결국 공간의 운영방식의 변화가 예술창작공간 활성화에 필수

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예술창작공간의 운영방식의 전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이 연구를 기반으로 부산의 예술창작공간이 창작산실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교류 거점,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다양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보고서

-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정책관, 「아시아예술융합창작센터(가칭: 아시아문화예술인교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3
- 김성하 외, 「경기창작센터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2020
- 김연진,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문화체육관광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발전방안 연구」, 2015
- 서울문화재단,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2020
- 서울문화재단, 「아트&테크 창제작지원센터 사례조사 및 적용 방안 연구」, 2022
- 문화체육관광부, 「아트컬처랩 조성 기본연구」, 2021
- 양산시, 「(가칭)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기본계획」, 2021
- 원향미 외,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 연구」, 부산문화재단, 2020
- 제주시, 「제주시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학술용역 보고서」, 2019
- 진천군,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 2022
- Jonathan Gross 외, Creative recovery? The role of cultural policy in shaping post-COVID urban futures, World Cities Culture Forum, 2023
- World Cities Culture Trends 2024, World Cities Culture Forum, 2024

논문

- 공주형, 「지역문화 분권의 관점에서 창작공간 운영 프로그램 연구: 인천아트플랫폼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 연구』 제22권 1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21
- 신란희, 「예술가의 레지던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9권 1호, 서울연구원, 2018.
- 안지연, 김재범, 「창작공간 개념 고찰 및 유형별 지원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9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5.
- 양현미, 「예술인 복지 관점의 창작공간 지원 정책 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16권 1호,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23

홈페이지

- 가나아트파크 홈페이지, <http://www.artpark.co.kr/>
- 독일베타니엔 홈페이지, <https://www.bethanien.de>
- 덴마크 코펜하겐 행위예술극장 HAUT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UTscene/photos_by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161>
- 아이오와 국제창작센터 홈페이지, <https://iwp.uiowa.edu/residency/>
- 아시아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넛차, <https://neocha.com/magazine/treasure-hill-artist-village/>
- 헬싱키 국제 예술가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www.hiap.fi/residency/>
-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홈페이지 <https://www.citedesartsparis.net/en/residencies/staying-at-the-cit%C3%A9>
- 파브리카 홈페이지 <https://www.fabrica.it/en/our-spaces>
- 사리 레지던시 홈페이지 <https://koneensaatio.fi/en/saari-residence>
- PACA 홈페이지 <https://pacaproyectosartisticos.com/artistinresidence/artresidency-apply>
- Cove Park 홈페이지 <https://covepark.org>
- 유럽입자물리연구소 홈페이지 <https://arts.cern/collide>
- 레글러 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chicago.gov/city/en/depts/dca/supp_info/air4.html
- 970 West Studio 홈페이지 <https://mesacountylibraries.org/services/970weststudio/air/applyforair>
- 빅토리아 공공 기록 보관소 홈페이지 <https://prov.vic.gov.au/whats/creative-residence-program>
- 웨스트베르크 <https://www.hamburg.de/politik-und-verwaltung/behoerden/behoerde-fuer-kultur-und-medien/themen/kulturfoerderung/residency-for-international-artists-at-westwerk-931724>
- 의정부 미술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uilib.go.kr/art/board/view.do?menu_idx=114&manage_idx=76&board_idx=30241&viewPage=2
- 수영구도서관 상주작가 홈페이지
https://www.suyeong.go.kr/reserve/board/view.suyeong?boardId=BBS_0000004&menuCd=DOM_000001607001000000&paging=ok&startPage=1&dataSid=261868
- 미국 내무부 국립공원청 <https://www.nps.gov/subjects/arts/air.htm>
- The narrows art retreat 홈페이지 <https://resartis.org/listings/the-narrows-art-retreat>
- Project Aaina 홈페이지 <https://www.projectaaina.in/andretta>
- La Masion de Beaumont 홈페이지 <https://lamaisondebeaumont.com/ko/artistresidency>

- 한국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business01/business_110716_1_detail.jsp
- SomoS Berlin Virtual Artist in Residence 홈페이지 <https://somos-arts.org/somos-berlin-virtual-artist-residency>
- 퐁피두 센터 레지던시 홈페이지 <https://www.centrepompidou.fr/en/the-centre-pompidou/regional-action>
- 르 썩카트르 파리 홈페이지 <https://www.104.fr/>
- Watershed 홈페이지 <https://www.watershed.co.uk/studio/news>
- 미국 환경보호청 홈페이지
<https://www.epa.gov/newsreleases/epa-announces-inaugural-artist-residence-program-partnership-national-endowment-arts>
- PAIR 홈페이지 <https://www.nyc.gov/site/dcla/publicart/pair.page>
- City of Boston 홈페이지 https://www.boston.gov/news/new-cohort-boston-artists-residence-and-funding-continued-projects-announced?_x_tr_sl=en&_x_tr_tl=ko&_x_tr_hl=en

표제지 · 간지 이미지

- Tracey Bloxham, Photo, The Jacobs Building, Cove Park.
<https://covepark.org/residencies-overview/accommodation-facilities/>
- Fabrica.
<https://www.fabrica.it/en/about/>
- Shenandoah National Park, Photo, Artist-In-Residence, National Park Service.
<https://www.nps.gov/shen/getinvolved/supportyourpark/artist-in-residence.htm>
- Sergio Urbina, 2018, Photo, HIAP Studios Cable Factory, flickr.
<https://www.flickr.com/photos/hiap/>
- Alex Marrs, 2022, Photo, Bonnie MacRae, Cove Park.
<https://covepark.org/residencies/youth-arts-bursary-programme-2022-23-3/>

부록

FGI 회차별 주요 내용

1차 FGI 주요 내용

주요 영역	발언 내용
창작공간 경험과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장르의 경우 연습실을 선호함. 그런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감만창의문화촌에서 연습실 사용 30회 제한과 같은 입주 조건은 작품/공연 활동에는 많이 부족. · 또따또가 레지던시의 경우, 시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작가를 연계하려는 노력은 좋음. 교육 프로그램 참가가 작가들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 필요하면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임. · 일본에서 조선통신사 레지던시 1개월 경험하였는데 (문학), 숙소가 따로 있고 기념관 같은 곳에서 글쓰는 공간이 제공됨. 일본 현지 공무원의 협조로 여행도 좀 하고 원하는 대로 자료 조사 및 취재가 가능했음.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걸로 자료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그와 같은 레지던시 방식에 대단히 만족함. ·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넓은 공간이 제공되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작가들로부터 고립이 되어 버리는 측면이 있음. 즉, 역설적이지만 나의 공간이 넓고 자유롭게 생긴 건 좋는데 고립이 됨. 고립되어 활동하니까 버벅되게 되고 뭔가 결핍을 느껴서 레지던시를 그만 두었음. 레지던시의 장점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하나의 레지던시에 다 섞여 있어서 갈등이 생기고 그게 힘들어서 그만두고 나가는 일도 있었음. · 다양한 레지던시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레지던시의 핵심은 작가가 용기를 내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응원하는 방향이 중요함. 그렇기에 작가에게 과도한 과제를 준다거나 또는 감시 감독의 눈빛으로 작가를 바라본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주의하면 좋겠음.
일상적 창작공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창작 작업실이 필요한 작가들의 경우, 핵심은 꾸준한 장기 지원임. 메뚜기 처럼 6개월 1년 2년 가지는 안 되고, 5년 8년 10년 이런 단위로 지원이 되어야 함. 독일 베를린에서는 예술가의 개인 작업실 월세의 50%를 예술재단이나 지방 정부 또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었음. -중략- 물론 동료는 그곳에 입주 자격을 얻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증명해야 했다고 함. 동료는 8년 동안 그 공간을 잘 활용했고 갱신이 돼서 총 16년 동안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함.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습실 같은 경우는 공연예술에 필요한 마루바닥이 잘 되어

주요 영역	발언 내용
	<p>있어서 좋았음. 이런 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고 연습실 사용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음.</p> <p>· 공적인 창작공간에 여타의 모든 장르가 다 들어오면, 문학 분야 작가들의 고충이 제일 큼. 문학 장르는 공간이 클 필요도 없기에 반드시 창작 공간을 제공하기보다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작가 스스로 알아서 창작하도록 하는 관점의 전환도 필요함 (예를 들어 1년 300만원 지원만으로도 작가 개인 작업실 월세에 도움이 됨) 장르별 차이가 다들 있겠지만, 문학 쪽은 정말 다름. 문학 장르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이 각자 알아서 창작공간을 구하게 하고 일정부분 월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일 것임.</p>
레지던시 창작공간 의견	<p>· 공연 창작은 큰 공간이 필요함. 대구 담배공장 자리의 대구예술창작소 레지던시는 스튜디오 안에서 공연도 가능할 정도여서 공연예술 작가들에게 매우 이상적이었음.</p> <p>· 친교하는 네트워크 장으로서의 레지던시도 필요함.</p> <p>· 해외의 좋은 작가들 국내 좋은 작가들이 부산의 레지던시를 계속 거쳐가다 보면 바로바로 교류로 연결되는 거니까, 타 지역 작가들을 부산에 초청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할 필요.</p> <p>· 교육, 봉사나 지역 커뮤니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입주 작가가 원하면 교육 활동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자기의 재능 기부뿐 아니라 작가로서의 재능도 증명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통해서 수익 창출과 더불어 작업실도 가질 수 있는 레지던시도 필요.</p> <p>· 국내의 좋은 작가들과 해외 작가들이 부산의 레지던시에 참여토록 단기로 숙식을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더 많으면 좋겠음.</p> <p>· 해외는 alumni 네트워킹이 많은데, 한국은 홍티같은 레지던시 참가 작가들이 이후 연계 활동 또는 네트워킹이 별로 없음.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홈커밍데이 등이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람.</p> <p>· 해외는 alumni 네트워킹이 많은데, 한국은 홍티같은 레지던시 참가 작가들이 이후</p>

주요 영역	발언 내용
	<p>연계 활동 또는 네트워킹이 별로 없음.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홈커밍데이 등이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작가들은 개성이 강해서, 인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고서 같이 협력해라는 식으로 의무를 부과하면 안됨. 그런 방식의 지원은 문학 분야에서는 통하지 않음. · 뉴미디어를 하는 작가에게는 테크놀로지와 특화된 공간이 필요함. 예를 들어 대형 벽면이나 빔프로젝트 등 비싼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기자재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음.
소개하고 싶은 레지던시형 창작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지던시에서 협업을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라고 회의하듯이 하면 오히려 서로 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레지던시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상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진정한 네트워킹이 되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곤 했음. · 한국의 레지던시는 버려지고 쓸모없는 공간을 활용하는데, 해외의 경우는 밝은 분위기의 좋은 공간, 편리한 입지의 레지던시가 많음. 그런 공간과 분위기에서 네트워킹 친교,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기 쉬움.
창작공간 정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 별로 공간 활용의 특성이 다른 점을 염두에 두고 레지던시를 설계할 필요(스튜디오 사용 방식의 차이). 예를 들어, 무용의 경우 그 공간을 빈 공간처럼 만들어 놓고 사용함. 작가(팀) 각각에게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때에도, 예를 들어 똑같은 10평을 모두에게 제공할 때에도 장르에 따른 공간의 특성을 배려할 필요. 장르에 따라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간 사용의 규칙과 공간 설계를 해야함. · 국내외 수많은 레지던시를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레지던시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음. 단순히 창작작업실을 제공하는 레지던시에서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숙박을 허가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작가에게 안정적으로 작업할 창작실을 장기간 대여해주는 게 핵심. 그래서 작가에게 작업실을 제공할 거면 다른 과제는 주지 말고 작업실을 장기간 빌려 주되, 숙식은 개별적으로 해결하면서 작업실에서는 작업만 하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 자율성을 중시하는 레지던시가 작가에게 만족도와 효율성이 높음. 또한 레지던시

주요 영역

발언 내용

프로그램이 반드시 공간 제공이라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 레지던시의 형태가 뭐든 간에 작가들의 자율성만 보장된다면 (자율적으로 프로젝트 할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게 핵심임.

· 해외의 레지던시 몇 군데 가보면 공동이 사용하는 공용 시설 섹션이 있음 (시각 예술 쪽이라면 프린팅을 위한 기계 등). 감만창의문화촌의 경우 다들 자기 스튜디오에 들어가 버리면 교류가 생기기 쉽지 않은 구조임. 커피숍처럼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조금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좀 잘 갖춰진 아늑한 공간이 필요함. 작가가 작업실에서 잘 안 될 때 좀 나와서 풀고 싶은 그런 공간이 레지던시 시설 내에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음.

· 레지던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점은, 예술인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함. 그리고 접근성.

· 쇼케이스 공연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설의 창작공간이 필요함. 너무 화려할 필요도 없이 최소한의 요소만 갖추면 그 안에서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음.

· 빈 건물에 고무판 조명 간단한 세팅이 오히려 유니크한 무용공간이 될 수 있음. 빈 폐건물 안에서 객석은 2~3층 정도, 바닥엔 고무판 정도만 깔고 조명기 설치 가능하다면 충분함. 예술가들을 통해서 오히려 죽어있는 공간도 살릴 수 있음.

· 규정, 규제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창의적으로 공간을 설계해야 함.

· 장르 특성에 맞출 필요- 한 공간에 여러 장르의 예술인을 모두 모아 상주시키는 것 보다는, 활동 준비금이든 창작공간 지원금이든 냉난방 지원금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한 장르의 필요한 예술인에게 지원토록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함.

· 물리적 공간보다는 시간적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촬영, 기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예술창작 지원의 또 다른 측면은 그동안 부족했음 (인터뷰, 촬영, 기록, 아카이빙 등). 작가가 창작을 하면 촬영/기록은 주최측이나 운영측에서 맡아서 해주는 것이 중요함.

주요 영역

발언 내용

기타 사항

- 24시간 오픈되는 공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창작을 위한 공간이 항상 열려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작가도 있는가 하면, 어떤 작가들에게는 거주/숙식 의미임. 이러한 개념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였음. 밤늦게 작업을 하고 싶어도 다른 작가의 수면을 방해하면 안되는 어려움 등. 이처럼 레지던시의 룰에 대한 해석 차이에 기인한 갈등도 있을 수 있음.



2차 FGI 주요 내용

주요 영역	발언 내용
창작공간 경험과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주로 레지던시 공모 기간이 동일해서 모든 작가들이 그 기간에는 매우 바쁨. 레지던시를 옮기는 transition관련해서 스트레스가 크고, 공식적으로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이 제한으로 힘들. · 공예분야라서 소음, 큰 공간이 필요해서 레지던시 자주 지원함. · 울산 소재 북부예술창작소 - 방음이 안되어서 작업 집중 못함. 20일 출석 요구의 어려움, 작가들은 20일 출석은 거의 직장인과 같은 부담임. 어떤 작가들에게는, 그들의 창작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음. 개선 필요. · 공연예술작가들은 큰 연습실 공간 필요. 여러 명이 공연 준비하려면 수 개월동안 준비해야 하는데 연습공간은 30시간으로 제한됨. 입주하지 못한 공연예술가들보다는 공간 사용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조금만 더 입주작가를 배려해주면 좋겠음. · 용두산 미술의 거리는 입지도 좋아서 편리함. 관광지에서 예술가들과 협력해서 작업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매우 좋았음. 주4회 10-4시까지 출근해야 하고, 손님이 오면 판매도 함. 아트상품 개발 의무 (월 30, 분기 재료값 30)가 있음. 하지만 작업 시간 더 필요하고, 너무 오픈된 공간이어서 불편함. 원하는 창작작업을 위해서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판매 공간을 따로 만들든가 아니면 판매 담당자를 따로 둘 필요가 있음. · 감만창의문화촌의 경우 작가들의 해외 교류 기회 부족함. 입주 작가가 해외작가를 초대하게 되면 초대된 해외 작가들을 지원해주면 좋겠음(숙박이나 교통 등). · 공연시 대외적인 홍보 필요. 기존에 큰 강당이 있어서 소규모로 극(공연, 리허설, 워크샵 등)을 올리기도 했는데 오히려 수리 보수를 하고 나서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아쉬움. '작업(연습) 시간' 제한의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함. · 레지던시가 끝나고 나서는 재단이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아쉬움. · 레지던시 기간 중에 기획사나 기획자, 평론가과의 매칭이 되었으면, 그래서 기획자와 전시구상 등을 해보고 지역 내 공간에서 전시까지 이루어지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

주요 영역	발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레지던시 시설 낙후의 문제. 시간이 흐를수록 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리 보수가 필요. 장기 입주 작가들에게 각자 알아서 꾸며봐라 는 식으로 방치함. 막상 돈 들어서 고치고 꾸미면 3년 안에 나가야 함.
일상적 창작공간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으로 레지던시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도움 받음. 경제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워 작가들끼리 모여서 샵을 운영해보자고 계획하여 실천중. 생활, 생계의 문제 중요. 아트페어 등에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인적인 샵을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함(여러 명의 작가들이 동업하는 형태로) 감천문화마을 안에 샵(3명 공동 동업 형태) 운영하고 있으면 8개월째 흑자 상태. 감천문화마을의 빈 공간 활용 필요. · 젊은 작가들은 다양한 레지던시를 돌아다니면서 경험하는 것이 좋은데 나이가 들면서 개인 작업실을 선호하게 됨. 특히 3년 정도의 단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한계 때문에 특히 더 개인작업실을 선호하게 됨. 3년 정도마다 이주할 필요 없고, 더 안정적임. 그런 점에서 개인작업실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더 좋을 듯. · 정부에서 몇 개의 공간을 사서 저렴한 월세의 방식으로 개인 작업실을 지원해준다면 많은 작가들이 선호할 것임.
레지던시 창작공간의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두산 미술의 거리처럼 작가들이 작품 판매하기 좋은 곳을 조성해주면 좋겠음. 다만 작업 공간이 조금 더 넓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필요함. · 다년 지원, 장기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함. · 레지던시의 또 다른 장점은 일단 어느 공간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짐. 개인이 혼자 창작활동 할 때에 비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훨씬 더 창작의 생산성이 증가함. 개인적으로도 입주작가 이후 개인전 단체전 등 늘었음. · 레지던시 공간을 24시간 개방이 안된다면 적어도 연습실이라도 지금보다는 더 오래 쓸수 있게 열어주기를 기대함. ·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이 더 필요함.

주요 영역	발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한 지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음. · 부산 지역이 외지인에 대한 텃세 차별이 심함. 타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작가들이 여기에 뚫고 들어오기 쉽지 않음. 입주 선발 시 심사위원 및 심사결과 공개 등 필요.
소개하고 싶은 레지던시형 창작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 작가들에게 홍티아트센터, 홍티예술촌은 잘 알려지고 선호하는 곳임. <p>글래스고우 단기(3주) 레지던시의 경험에서 네트워킹 경험 있었음. 레지던시에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었고, 매주 월요일 작가들끼리 만나서 사소한 얘기들 나누고 헤어지는 그런 정도. 자기 작품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도 모두 자율적이었음.</p> <p>싱가폴 레지던시 등 경험한 외국 레지던시의 경우 디렉터가 작가의 의사나 플랜 등을 우선 물어봄. 작가가 어떤 흥미가 있는지 와서 뭘 하고 싶은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혹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자기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작가의 작업에 도움을 줌.</p> <p>작가들도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반딧불이가 그런 프로그램을 작가들한테 많이 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자면, 3개월짜리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자들과 작가들이 협력하도록 조율, 홍보하고 지원금주는 프로젝트가 잘 되어 있음. <p>경기 창작센터의 경우 창작 작가와 교육 입주작가를 분리 선발했음. 교육 입주 작가에게는 창작 공간만 지원하고 평론가 지원 등은 없음. 대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료를 지급받았음. 이처럼 교육만 담당하는 작가와 창작 작가를 구분하는 레지던시도 좋은 것 같음.</p> <p>독일 베타니엔 스튜디오는 외부의 유명한 작가를 불러서 그 지역의 예술토대를 더 풍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임. 생계 걱정없이 1년동안 작업할 수 있는데 각자 알아서 지원금 받아와야 함. 베타니엔 레지던시 오너가 갖고 있는 엄청난 네트워킹의 혜택을 얻으려는 작가들이 많음. 전혀 간섭을 안함. 작가들의 사명감이 레지던시 운영에 핵심.</p>
창작공간 정책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두산 미술의 거리는 외국인 등이 작품 구매율이 높았고, 수수료 없이 전액 작가가 작품 판매 대금을 가져갈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은 되었음.

주요 영역	발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레지던시의 경우, 그곳에서 정해놓은 어떤 틀에 맞춰서 작가를 뽑아서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 스스로 결과물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도와주는 방식. · 레지던시의 공간의 특성화 문제를 통해서 24시간 작업실이나 공간개방, 오픈스튜디오 등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빚어지는 오해나 차이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작품 보관 공간 절실. 시에서 폐교, 폐가 공가 지원 희망. 창고형 공간(빈 컨테이너 활용)에 작품 전시를 상설전처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음. · 한 명의 기획자가 100명의 예술가를 키운다는 말이 있음. 실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 없이 공공기관에서 담당자를 배정함. · 테크니션 지원(인쇄, 촬영, 조명, 목공 등)이나 관련 업체를 연결해주는 도움이 필요. · 평론가와 매칭되었을 때 매우 도움이 되었음. · 연습장, 공공임대 스튜디오, 미술품 보관, 창작에 전념 가능한 창작 레지던시 등등 지원 유형의 다양성 고려할 것. · 경험과 경력이 없는 신진작가들이 레지던시 지원하기 매우 어려움.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레지던시가 필요한 젊은 작가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책 또는 그들에게 다양한 레지던시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함.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지던시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어떤 레지던시이든 모든 작가(예술가)를 만족시킬 수 없음. 무엇보다 작업공간이 필요해서 입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외부에서 봤을 때 얼마나 매력적이어서 작가들을 오고 싶게 만드느냐가 중요. · 무용,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연습실 등 부족. 공공기관은 자체 사업 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연습실을 잘 안 빌려줌. 결국 개인학원을 빌려서 연습해야 하는데 가격이 비쌌. · 레지던시 관리의 문제도 중요함. 무책임한 참여(입주) 예술가들도 있음. 공간을 받았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작가들도 있었음. 레지던시 작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함.

3차 FGI 주요 내용

주요 영역	발언 내용
창작공간 경험과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만창의문화촌 연습실은 규모가 큰데, 기술적인 지원 등이 부족함. 새로운 형태의 기술 융합 연극을 시도해 볼 곳이 없음. 협업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음. 그냥 과거처럼 대본 쓰고 연습만 하는 그런 연습실만 필요한 게 아님. 예를 들어, beam을 쏘보고 구조물 등을 세우고 움직여보는 것 기존 형태의 연습실로는 안 됨. 부산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이런 분야의 예술인이 전국에서 부산으로 몰려들 것임. 돈은 좀 들더라도 부산만이 가진 특화된 공간이 필요함. · 역시 ‘사람’이 중요함. 레지던시에 입주하면 작가들이 서로간에 협업할 수 있다는 점. 입주 작가들이 협업하려는 그런 의무감, 룰, 분위기가 또따또가의 강점임. 다만 시각예술 위주의 공간 세팅이라서 영화, 음악 분야의 작가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해요소가 있음. 특히 ‘방음’시설의 문제가 큼. · 20년 전부터 민간 주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입장에서 볼 때, 계속 지원금이 줄고 있음. 20년 전에 1년 지원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천만 원 정도임. 지금의 물가를 고려할 때,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민간에서 그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실천하기는 불가능함. · 홍티의 장점은 신축 건물이라 너무 좋음. 1년에 10명 미만으로 선발이 되다 보니,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일종의 스펙으로 인식됨. 그래서 어느정도 수준있는 작가들이 선발되기 마련인데, 그 작가들은 이미 경력이 풍부하고 대부분이 작업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홍티 작업실 제공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한 달에 50만 원씩 전세 지원금 주는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함. 주어진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 있음. · 또따또가의 경우 배리어프리 고려가 아쉬움. (오래된 공간이어서 장애인 노약자 접근성 떨어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작가들에게 또따또가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됨. · 감만창의문화촌에서 3년 동안 작업하면서 공간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주차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샤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만족하였음.
일상적 창작공간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작업실이 그 개인의 작업실만으로 끝나면 안됨. 지역의 예술가들과 지역의 개인 연습실(작업실)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공공기관에서 그 방법을 모색해주면 좋겠음

주요 영역	발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장르 쪽에서는 네트워크에 특화된 공간보다는 고립된 공간이 더 필요함. 공간에 참여하면 과업/숙제의 부담감이 있어서 대개는 개인 작업실을 선호함. · 그냥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바닥에 굽히는 것 조심할 필요 없는 그런 공간, 밤이고 새벽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협업을 해야 할 경우, 모두가 서로 시간을 맞추기 힘든데, 어느 때든 만나서 연습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눈치 보지 않고 맘 편하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절실함.
레지던시 창작공간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으로는 홍티아트센터가 좋았음. 창작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너무 컸음. 너무 많은 프로그램과 결과물을 빨리 만들도록 작가들한테 요구하였는데, 지나친 결과 도출 위주의 운영 방식과 결과물 중심의 운영 방식은 참여하는 작가들에게는 부담감이었음. · 레지던시 공간을 늘이고 줄이고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기자재, 도구나 소소한 재료를 필요할 때 마다 찾아 쓸 수 있는 공유창고, 공유 공구 작업실이 더 중요함. 예를 들어 나무를 톱질할 공간이 없음. 실내에서 자르면 분진이 생기니까 바깥에서 자르는데, 그러면 또 나중에 민원이 들어옴. 작가들에게는 활동 작업에 적합한 공간과 도구가 필요한 것이지 반드시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님. · 개인적으로 볼 때, 부산의 문제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레지런스가 너무 많음. 그리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매뉴얼이나 규칙들이 있어서 작가들이 부담스러워함. · 방대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막상 먼지 난다고 밖에 나가서 벤치에서 톱질을 해야 한다면 바닥에 물감이 묻으면 안되니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작업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공간을 위한 작가’의 사례임. 즉 작가들을 위해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작가를 불러들인 것이 됨.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작가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소개하고 싶은 레지던시형 창작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레지던시에서는 생활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부러웠음. · 부산진구청의 공유 오피스 경험이 있음. 스타트업 기업들과 예술가들의 협업 기회가 매우 좋았음. 분야에 따라 기업-예술 분야 협업 기회가 가능하고 필요한데, 디자인, 광고 영상 등 다양하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 앞으로도 부산의 스타트업 기업과 예술인들의 만남 자리라든가 협업기회가 있으면 좋겠음.

주요 영역	발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희문화창작촌의 경우 레지던시 후 발표할 수 있는 플랫폼 (웹진)이 훌륭함. 부산에서도 그런 플랫폼 (웹진 같은)을 도입할 필요. · 문학작가들을 위한 장르 특성별 지원책의 한 가지 사례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프린스 호텔과 협업해서 레지던시를 운영함. 1년 내내 작가들에게만 빌려주는 데, 부산에도 빈 호텔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기관에서 민간 (호텔 등)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주면 좋겠음. · 미국의 아이오와 창작센터나 영국의 노리치 창작센터의 사례처럼, 대학과 협업을 하는 방식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대학 기관과 지역, 그리고 공공기관이 협력을 해서 여유 공간들을 활용하면 좋겠음. 예술가의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고, 대신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예술 창작관련 강의를 1년에 1회 정도를 제공하는 방식도 좋겠음. · 울산의 문학 레지던시는 옛날 여관을 개조해서 만든 단칸방인데. 방음시설이 추가되어 있고. 샤워, 취식 시설을 포함해서, 작가들이 글쓰는 작업하기에 충분했음. · <예술지구P>는 올해 기금 지원을 못 받아서 힘들지만, 역설적으로 이상적인 레지던시의 모습을 보여줌. 자유롭게 아무런 제약이 없음. 주변의 공장 노동자들 작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락날락함. 왔다갔다 하면서 저절로 네트워킹이 됨. 지원이 없고 예산이 없으니까 서로 다양한 공유도 하고 배우며,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많은 활동이 벌어지고 있음.
창작공간 정책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지던시 사업을 반드시 관(공공기관)에서 주도해야 할 이유가 없음. 민간에서 레지던시 사업하는 것을 간접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음. 또한 민간 레지던시 사업의 경우 준비기간에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기간도 지원할 필요 있음. 레지던시가 창작공간, 전시공간, 휴게공간, 숙박시설 모두 갖춰야 하는데 공식적인 레지던시 기간 (예를 들어 3개월)만 지원하는 것은 부족함. 민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기간에 대한 지원금도 책정해야 적절한 지원이 됨. · 레지던시 설계할 때 장르별 특성 고려해야 함. 장르별로, 특히 문학분야는 따로 레지던시할 필요 있음. 레지던시에 입주한 문학 작가들은 타 장르의 소음 문제 때문에 야간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음.

주요 영역	발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이 중요함. 가장 중요한 핵심 입지에 예술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만나고 또 예술가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함. 한국의 창작공간은 주로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소외된 지역에 있어 시민들과 작가들이 방문하기가 어려움. · 또따또가 졸업생을 초대하는 협업 전시가 있었는데 이전 운영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정보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알음알음으로 작가들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하여 진행하였음. 좀 더 체계적으로 작가들 정보 공유할 필요 있음. · 작가들이 레지던시를 지원할 때 그 레지던시가 가진 환경을 많이 고려함. 그런데 오래된 건물이 갖고 있는 역사성 사회성, 그 지역의 정체성을 선호하는 작가가 있는 반면, 생활이 여러모로 편리한 신축 건물을 선호하는 작가가 있음. · 레지던스를 통해서 작가들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런 측면에서 레지던시를 설계할 필요 있음. · 창작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장르별로 혹은 예술인들의 나이대별로 요구하는 게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해야 함. · 작가 입장에서, 장르의 특색을 존중해주는 공공 사업을 추구하는게 필요함.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따또가나 홍티 등의 시설들이 일반인들에게 너무 알려지지 않음. 홍보가 더 필요함. · 민간 레지던시 운영자로서, 작가가 특정한 성격의 작업을 하고 싶으면 그 작업이 가능한 지역 예술가와 연습실(혹은 작업실)을 갖고 있는 작가와 매칭해서 작업하도록 도와주고 레지던시는 숙소만 제공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의 레지던시도 고려해볼 필요 있음.



4차 FGI 주요 내용

주요 영역	발언 내용
창작공간 경험과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할 때마다 개인 사비로 공간을 얻어 사용하기 매우 어려웠으나 감만창의 문화촌에 입주한 이후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 많아 입주 후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해외 레지던시 경험 중에, 레지던시 기간 내에 당장의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레지던시 이후에 성과물이 나온 것도 그 결과물로 인정해주는 레지던시가 있었는데 그런 유연한 방식의 레지던시 룰이 너무 좋았음. · 무용의 경우 지금까지 봤던 레지던시들을 보면 주로 극장이나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나 축제와 연결이 돼서 작업을 같이 한 것 같음. 그럴 경우 공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대체로 숙소는 외부의 공간에 있었음. · 레지던시 공간에 입주하였던 (그 공간을 스쳐지나간) 예술가들을 조명하거나 아카이빙하는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음. 예술창작공간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전통을 기록하고 업적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인데 아카이빙 등에 더 관심이 필요함. 훌륭한 작가를 배출했지만 그것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 공간의 자산을 남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감만창의문화촌의 경우 작가 안내나 도록도 구비되어 있지 않음.
일상적 창작공간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스콧처럼 짧은 기간동안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임대해줌으로써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나름의 효과가 있음. · 실제로 해외의 몇몇 도시에서는 공실(공가, 폐가)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동기가 됨. 이처럼 예술가들이 저렴하게 예술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공공에서 제도적으로 건물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음. · 작가들이 개인 작업실을 얻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정책을 만들어서 작가들이 반자립형 공간 (렌트비 일부 지원 등)을 사용하는게 좋겠음.
레지던시 창작공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 숙박 및 창작활동비를 지원받고 참여했던 해외 레지던시의 경우 영수증 처리 등의 요구사항도 매우 단순했고, 레지던시에서 요구한 과업의 경우도 레지던

주요 영역	발언 내용
대한 요구	<p>시 당시에 성과가 난다면 전시나 발표를 하면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성과가 도출되었을 때 알려주면 되는 방식이었음. 그러한 유연한 정책이 좋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장르이다보니 특히 전통 공연 연습시 복이나 약기를 사용하는데, 그 소음으로 4층에 입주해있던 문학작가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음. 다양한 장르가 함께 공간을 사용하면 시너지도 발생하겠지만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도 생김. 장르 특성상 공간의 분리가 꼭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함. · 개인적으로 그동안 지역에 관한 리서치를 많이 해두었는데 이것을 해외의 예술가들과 공유하면서 부산의 생태나 역사성에 대해 토론하고 창작 및 발굴까지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레지던시가 매우 절실함. ·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부산의 스노우캐슬처럼 주택가와 떨어져 있어서 소음걱정도 없는 곳인데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어있는 이 공간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봄. · 다양한 과정과 결과를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필요함. · 연습에서 쇼케이스까지 원스톱으로 필요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레지던시도 필요함. · 레지던시 작가 아카이빙 및 오프라인 도록 제작 및 전시공간 필요함. · 레지던시에 입주하게 되면 소속감을 느끼고, 동료들을 만나고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레지던시를 준비하여야 함.
소개하고 싶은 레지던시형 창작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코하마뱅크아트 레지던시(단기) 입주시 별도의 전시공간을 사용하였음. 헤머헤드 스튜디오라는 창고형 공간이며 국제 레지던시나 지역 내 레지던시 작가들이 사용하는 스튜디오로 매우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음. 당시 숙소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음. · 일본의 빌라 쿠조야마 레지던시 시설이 매우 좋았음. 1층은 스튜디오이고 2층은 작가 숙소로 사용되었음. 거기서 만난 프랑스 작가의 경우 프랑스의 자국 작가들이

주요 영역	발언 내용
	<p>해외로 나가서 새로운 문화 경험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카오슝의 옛 쌀창고를 이용한 극장이 있었는데, 10명 정도의 예술가들이 레지던시를 하고 최소 1~3개월정도 머물면서 작업을 함. 숙소는 근처 아트빌리지를 사용하였음. 예술가가 원하는 경우 해당 극장공간을 활용해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축제 기간에 와서 본인이 작업을 보여주는 방식 등으로 자연스러운 창작과 교류 시스템이 있었음. · 프랑스 엠마니엘그리대라는 안무가의 경우는 한국 무용수들이 교류차 방문하면 친절하게 연결된 대학의 학교 기숙사를 제공하였음. 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 덴마크에 하우트(HAUT)라는 민간 극장의 경우에 극장 공간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은데 그 안에서 무대장치를 만들 수도 있고, 장비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서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음. 시내 한가운데 있어서 접근성도 좋았음. · 프랑스 씨떼 레지던시의 경우 해당 레지던시에 예술가로 등록이 되면, 다음에 프랑스에 방문할 때 공실이 있으면 해외 예술가들에게도 공간을 제공해주는 베네틃 제도가 있음. 부산의 레지던시에도 이런 유연함이 필요함.
창작공간 정책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예술창고’와 같은 공간이 필요함. 전시나 공연이 끝나고 발생하는 소품, 의상, 작품 등을 처리하는 것이 큰 문제임. 그런 것들이 필요한 단체나 예술가들과 공유하고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좋겠음. (일종의 당근마켓) · 공용 보관 공간에 접수된 작품이나 소품 등을 리스팅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개하면 필요한 예술가나 단체나 기관 등에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필요함. · 예를 들면 현재 운영중인 다봄 홈페이지에 해당 플랫폼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겠음. ·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최초 작품 준비에서부터 연습 단계 및 쇼케이스까지 원스톱으로 필요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레지던시가 필요함.

주요 영역	발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지던시 작가 아카이빙이 필요하고, 앞서서 입주했던 선배 레지던시 작가들 (alumni)과의 교류/네트워크의 기회를 만들어야 함. · 무용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다 공공 공간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프로덕션 하우스에 누구든지 와서 실험이 필요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공공 공간을 최대한 오픈하고 개방하는 것이 필요함. · 창고 같은 공간 하나라도 모든 장르에게 열려있으면 그 안에서 교류하면서 협업도 가능 하리라 기대함. 이런 레지던시 공간에는 오히려 장르간의 구분이 필요없다고 생각함. · 예술가 혹은 단체가 진입-성장-사업화라는 단계로 성장 발전해서 자립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이 필요함.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레지던시 작가 단체전에 모든 레지던시의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음. · 아르코 미술관에 가면 아카이브실이 있음. 부산에서도 예술가를 찾고 싶을 때 이런 아카이브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현대미술관에 미술 도서관이 있지 만 지역의 아티스트들을 모아놓지 않았음. 부산 레지던시 입주작가 출신의 예술가 들 아카이브를 오프라인으로도 볼 수 있으면 좋겠음. · 서울의 대학로에 있는 예술청에 마련된 공간이 있는데, 예술가의 업무 미팅이나 리 서치, 휴식이나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며 또 지하철역 (혜화역) 바로 앞이라 접근성 이 좋음. 그러한 공간을 부산에 하나 만들 수는 없을까? · 늘어나는 폐교를 활용한 예술창작공간 조성이 필요함. · 예비예술인 포함 예술인들에게 예술창작공간의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홍 보가 필요함.



5차 FGI 주요 내용

주요 영역	발언 내용
창작공간 경험과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공간에 다양한 단체가 (음악, 그림, 공연, 글쓰기 등) 모두 입주하여 어려움이 있음, 레지던시를 장르별로 나눌 필요. · 감만 입주 1년차인데 우리 단체 연습실과 사무실이 모두 필요함. 피아노가 있는 연습실이 필요한데 감만창의촌의 연습실 대관이 어려울 때는 아는 교회를 자주 이용함 (비용 발생). 늦은 밤 혹은 새벽에 (불규칙한 연습 시간) 연습해야 할 때가 많은데, 해운대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등의 연습실을 빌리더라도 밤 11시 전에는 연습을 마치고 나가야 하니까, 결국은 다른 공간을 찾아야 함. (사설학원 등을 이용함). · 개인 위주의 시각예술 등과 달리 공연 분야는 단체로 움직이니 팀을 유지하는게 쉽지 않음. 공공기관 혹은 민간에서 레지던시를 기획할 때 장르별로 세분화하면 더 효과적인 레지던시가 될 것임. 홍티아트센터는 작가들에게 24시간 개방되어서 편리하지만, 기간이 5개월 정도의 단기라서 아쉬움. · 홍티에 입주했을 때 작가들에게 전시지원비 등을 넉넉하게 제공하였던 것이 좋았음. · 감만창의문화촌에 입주하였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왔는데, 창작에 집중하기 힘든 분위기였음. 물론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창작에 더 도움이 되는 작가들도 있을 것임. 실제로 작가들은 어느 레지던시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음. 그런 면에서 레지던시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장단점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레지던시 별로 특색있게 만들어도 될 것 같음. · 설치작가에게 큰 방 하나를 독점적으로 쓰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이상적인 창작공간이 아닐 수도 있음. 공간의 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작업에 적합한 공간인가의 여부임. 예를 들어 창작과정에 먼지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라면 환기시설이 없는 실내에서는 어려움. 즉 공간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장르에 맞는 시설이 중요함. · 장애·비장애를 넘어 모든 예술가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창작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포용예술공간 <창작공간 두구>가 있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만나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협업하고 또 장애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같이 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이 최근에 부산에 만들어졌음. 다양한 관점과 공감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임.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차별과 편견없이 같이 뭔가를 만들고 또는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레지던시라고 할 수 있음.

주요 영역	발언 내용
일상적 창작공간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공간 대관의 어려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극단의 연습실을 찾는 것이 문제임. 현재 망미동에 개인 연습실을 사용하는데 넓은 공간에서 편한 시간에 연습하는 장소를 찾는게 제일 큰 과제임. · 양주 가나 아트파크 (경기도 장흥 가나 아틀리에)를 참조할 만함 - 가나 아트파크의 경우 월세는 비싸지만 그곳에서 작가들의 작품 판매를 잘 지원함. 공간 비용을 내가 부담하지만 여러모로 편함. 내 작업실을 갖고 있으면서 주위의 동료들과도 같이 활동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잘 짜여있음. 부산에서도 국유지나 사유지 등에 월세 내는 작가들의 공간을 잘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봄.
레지던시 창작공간의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대, 목표 차이, 장르별 특성 등에 따른 세분화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필요함. · 레지던시 운영자 (담당자)들의 경직성도 개선되어야 함. 예술작가들을 대상을 하는 사업에서 무조건 매뉴얼대로만 하면 안됨. 원칙과 규정을 유연하게 해서 담당자들에게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함. 담당자의 결단이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그렇지 해결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봤음. · 또한 담당자들의 전문적 역량도 강화되어야 함. 예를 들어 해외 레지던시 참여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담당자의 교체로 인해 참가하지 못함. · 담당자 순환 보직으로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구조. 특히 레지던시 담당의 경우 작가들이 데이터를 쌓아가는 곳인데 담당자들이 작업과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작가들의 필요와 요구사항 등을 이해하기 어려움. · 스타트업 등 타 분야와의 협업이 더 많아지면 좋을 듯. 재단에서 그런 매칭 시스템에 더 노력할 필요 있음. 다원예술 쪽의 기획자가 부족한데, 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듯. 3D 관련 전문가 등이 부산에도 있는데 타 분야의 artist들이 그런 걸 잘 모름. 그런 매칭을 하는 기획자 혹은 재단의 역할이 필요함.
소개하고 싶은 레지던시형 창작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코틀랜드 Cove Park 레지던시의 경우, 외딴 지역 해안의 산중턱에 위치한 곳이었지만 만족했음. 즉, 입지가 나쁘고 교통이 불편한 곳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음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레지던시 vs 고민과 사유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레지던시 vs 네트워킹이 주목적인 레지던시 등). 그런 점에서 부산 지역의 레지던시가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할지, 부산만의 독특한 특색을 내세워야 할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주요 영역	발언 내용
창작공간 경험과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안마의 어떤 레지던시를 기획하고 참여했었는데, 처음부터 예술가들이 다 직접 기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음. 즉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민간(개인, 예술가)이 제안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이 어떨까? · 독일의 아틀리에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은 경기도 (양주 가나 아틀리에)와 비슷한 방식임 편하게 작가들을 만나러 갔다가 다른 작품들도 구경하고 이런 저런 네트워크와 경험을 넓힘. 월세를 내기는 하지만 그 월세를 작가가 해결할 수 있게끔 컬렉터를 연결해서 작품을 판매하고 소득이 생기게 도와줌. 판매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정말 이 작가가 월세를 내기 힘들다 싶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도와줌. 작가들마다 지원하고 협의하는 방식이 다름. 즉 레지던시 (또는 다른 형태의 창작공간)에서 작가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과업과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작가별로 원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함
창작공간 정책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교를 아트빌리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음. 부산 안에서도 국유지나 공가/폐가중에 예술가들이 작업하기 좋은 공간이 많음. 그런 공간을 예술가들에게 매칭해주는 노력이 필요함. 대규모 예술촌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함. · 연령대에 맞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중요함. 40대가 선호하는 레지던시의 형태나 분위기와 20~30대가 원하는 레지던시는 다름. · 기획이 정말 중요. 예술창작에서의 분업의 역할 (기획자의 일 vs 순전히 창작하는 작가의 일 vs 글쓰고 평론하는 사람의 일). 부산지역에서는 그런 기획자와 평론가들이 많이 부족함. 기획자 평론가들이 있어야 건강한 예술이 존재할 수 있음.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 해외 기획자를 위한 오픈콜-레지던시 필요. 부산지역 내에서 기획자를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으로, 타지의 기획자들이 부산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부산에서 기획자를 키워도 지역내에서 일할 기회가 없으면 결국 서울로 가버리게 됨. 그래서 기획자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지에 있는 기획자가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 · 예술가들도 타 지역에서 부산으로 올 기회와 인센티브가 별로 없음. 타지에 계신 분들이 와서 레지던시를 해야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도 여기 안에서 네트워크를 할 수도 있음.

주요 영역	발언 내용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지던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획자 양성이 필요. 이런 기획자들이 있다면 레지던시 운영이 더 효율적이 될 것임. <p>타지의 작가들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레지던시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예술 기획자, 창업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 프로그램도 좋을 것.



6차 FGI 주요 내용

주요 영역	발언 내용
창작공간 경험과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제공은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함. 나라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기간)제한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3년이 끝나고 이 공간을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깜깜. 재신청 불가 규정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3년 이후 재연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생각해 보면 좋겠음. · 또따또가에는 입주 작가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음. 창작의 도우미 역할, 내 창작물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없어 아쉬움. 레지던시에는 인큐베이팅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부족함. 실질적으로 작가를 도울 방식이 필요. 센터에서 작가들이 먹고 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준다든지 생계형으로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작가들이 커나갈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 · 개인 갤러리(개인 작업실) 운영 경험이 있는데, 가까운 근교의 레지던시를 찾던 중, 또따또가로 완전 이주하였음. 그런데 이사비용이 수 백만원 들었음. 그런데 입주 기간 이후에 또 이사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임. 레지던시 공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작가들에게는 평가를 통해 1년 정도 갱신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음. · 반딧불이 입주 당시에는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창작지원금으로 작업을 했었지만, 공공의 지원을 받고 운영되는 것이다 보니까 1년 단위로 회계하는 부분, 출석부를 채워야 되는 것, 주민소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필수로 들어가 있음. 작업에 좀 더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 홍티아트센터의 단점은 기획자의 부재임. 기획자도 함께 입주하는 시스템이면 어떨까? 부산에는 기획자도 많이 없고, 또 갤러리는 많지만 거의 상업 갤러리 위주고, 국공립 기관 외에는 설치나 현대미술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많이 없음.
레지던시 창작공간의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티아트센터를 울산 북구의 예술창작소와 비교해보면 훌륭함. 작업 공간과 거주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먼지를 맡으면서 잘 필요도 없고 뭔가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강점. · 작업실도 주어지고 창작 지원금도 나오고 비평가 매칭도 제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할 수 있어서 현재의 레지던시에 매우 만족함.

6차 FGI 주요 내용

주요 영역	발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비평가와 매칭 시켜주고 프로모션 비디오도 제작할 수 있고 또 기관과 연결해서 어떤 작업을 원한다면 연결해주는 시스템만 있으면 작가들은 만족할 것임. · 작가들의 개인적 노력도 필요함.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의 작품이 pick될 지 모르기에 항상 준비해야 함. 인스타, 홈페이지 등 작가들의 포트폴리오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없음. 재단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음. · 기획력을 바탕으로 문화재단에서 전체가 참여하는 단체전이 아니라, 기획전 형식으로 뽑아내면 좋은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임. 현재 입주 예술가들이 내부적으로 축제를 만들고 준비하는데 원도심 창작 공간 활성화의 기회임. 시너지 발휘를 위해 재단에서 장르 간 협업기회를 만들어 주는게 필요.
소개하고 싶은 레지던시형 창작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인천 연수구에 있던 레지던시는 기획자랑 작가가 페어링 (짝을 지어서)해서 결과 보고전을 하게 되어 있음. 홍티아트센터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홍티만의 브랜딩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젊은 기획자들도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그들 나름의 신선한 기획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것임. 서울의 전시 공간들도 보면 기획자가 본인의 인맥을 통해서 전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음. 작가 searching 과정이란 게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아서 함. 부산에 기획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기획자와 페어링해서 입주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일 수 있음. · 부산 비엔날레와 관련하여 비엔날레 기간에 창작공간 페스티벌을 같이 운영해보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음. 작가들에게는 외부지역 사람들에게 자기 작품도 소개하고, 관광 차원에서도 효과, 페스티벌 형식을 통하기 때문에 기획자의 부족 문제도 다소 해결함.
창작공간 정책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자가 부산에 많이 없음. 키워놓은 기획자들도 부산에 남아 있지 않고 서울로 감. 돈을 계속 들여서 새로운 기획자를 양성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기획자들이 부산의 예술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 · 예술가들이 지역 레지던시에 단지 작업공간만이 필요해서 오는 것 아님. 교류와 네트워킹을 위해서 오는 것임. <p>타지역 작가들이 부산에 방문해서 작업하게 하는 동기 부여가 필요함. 부산 지역 레지던시만의 특징과 장점이 무엇일까?</p>

주요 영역	발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창의적인 공간에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 · 각 장르에 맞는 장비, 공간이 필요. 전문 분야에 맞는 창작공간이 필요함. 현재는 창작공간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매번 무거운 물건 옮기느라 너무 힘들. · 공간의 자산이 네트워크로 이어지지 않음. 예술계의 특징으로 작가들이 소속감 갖기 어려움. 하지만 레지던시 경험을 통해 소속감 배양될 수 있음. 이런 걸 희망하는 작가들도 있음.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청년작가 지원 등 청년 작가를 위한 전시 기회가 적는데, 재단에서 전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함. 예산을 타려면 작가들이 기획을 해야 하는데 작가들이 그 부분에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기획자와의 매칭을 도와줘야 함. · 작가들이 나중에 개인전 회고전 등을 할 때 모아놓은 데이터(아카이빙)가 없음. 작가들은 항상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함. 홈페이지, 인스타 등 개인적인 작업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자료의 아카이빙을 많이 해놔야 언제든지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음. 작가들의 포트폴리오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 · 부산 아트페어를 방문해보면 상업 갤러리는 많던데, 주로 서울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고 있음 왜 지역 갤러리들이 부산 출신 작가와 연결이 안 될까? 지역에 있는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에는 주로 서울 작가들이 내려와 있음. 지역작가들을 지역에서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 광주 전라도 쪽은 지역작가들을 잘 챙겨주는 듯. 그런데 여기 부산은 안 그런 것 같음. · 지역에서 지역작가를 키워주는 노력. 해외 평론가 등을 많이 초대하는 행사를 늘렸으면 좋겠음. · 국제 페스티벌을 할 때, 외국 작가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작품을 가져와서 보여줄 게 아니라, 국내 작가들과 국내 작품을 더 많이 전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의 큐레이터와 평론가들을 더 많이 초대해서 우리 작가들을 널리 알리는 게 더 중요함.

7차 FGI 주요 내용

주요 영역	발언 내용
창작공간 경험과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보장암 레지던시 국제예술촌 경험이 있었는데,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부족했었지만 자연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도 나름 좋았음. (관찰, 사유, 놀이 등) · 홍콩의 외곽 레지던시에 있었던 경험에서 볼 때, 교통이 편리하고 도심에 가까운 곳은 정보획득 등 유리하지만, 고립된 곳은 오히려 작가들끼리 교류가 더 많이 되는 경우도 있음. 물론 장단점이 있음. 갈등이 있으면 갈등도 더 커지게 될 수도 있음. · 해외레지던시는 연령별로 나뉘지 않는 듯. (한국은 주로 청년위주로 레지던시. 외국은 나이 차이 커도 교류하는 레지던시 분위기가 좋았음). ·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고자 해외 레지던시에 지원했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한국은 6개월-1년 정도인데, 해외에서는 1, 3, 6개월 단기에 자비 체류라서, 집중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하게되었고 동기유발하기에 충분했음. · 또따또가 입주 전에 2년간 북구 청년 아트 스테이션 입주 경험 있었음 (청년 창업 일자리 공간, 예술인 창업 경험). 거기서 생업 병행하는 예술가 경험. 이후 예술인과의 네트워킹 필요해서 또따또가 입주. 다른 작가의 과정을 보며 배움. 상호 질문 답변 기회. 협업 기회 등이 좋았음. · 홍티는 설치 분야의 강점이 있어서 부산와서 만족함. 그러나 그 이후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여러 번 실패 (외국 큐레이터 방문, 컨택이 무산되었음). 홍티는 레지던시 갱신이 안되어서 너무 아쉬움. 전시 공간을 대여해주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부산의 레지던시는 프로그램 중에 시민 프로그램이 억지로 끼워진 느낌. 시민 공유 향유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는 인력 필요함. 오픈스튜디오 등도 잘 계획하면 시너지 효과도 나고, 향유, 네트워크 등 잘 될 수 있음. · 구청 운영 레지던시 몇 개 있으나 작가들의 창작 기대는 없이 의무만 있는 듯. 운영자(공공 행정 실무자)들이 레지던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함. 담당 공무원 교육 필요.

주요 영역	발언 내용
일상적 창작공간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따또가 인근 건물은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이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작가에게 임대할 수 있었음 함.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므로 무거운 도구 들고 걸어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움. · 또따또가 주변 건물을 개인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시나 재단에서 그런 매칭해주는 시스템(신용보증기금 같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음.
레지던시 창작공간의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지던시의 역할은 단지 예술창작을 위한 작업공간만이 아님. 다른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며, 작업 시간 이외의 기타의 (교류 등의) 시간을 보내는 면에서 편리하면 좋음. · 공간 대여라도 해주면 작가가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듯. 홍티 앞 폐공장 공간 활용 필요할 듯. · 기업에서 예술가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을 해주는 케이스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음.
소개하고 싶은 레지던시형 창작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보장암 레지던시 국제예술촌처럼 꼭 레지던시가 도심 안에 있을 필요없음. 그 레지던시의 '정체성'이 중요함. 비록 시설이 낡아서 작업에 약간 불편함이 있을 지라도, 역사가 있는 곳에서, 작가들이 그 건물 혹은 공간에서 의미를 찾아 낼 수 있는 곳이라면 예술가들이 선호할 수 있음. · 베를린 레지던시의 경험- 완전 도심 한복판이라서 다른 작가들과 교류하기 좋았다. 거기는 공간운영자 2명이 기획, 그 밑에 2-3명 보조하였고, 큐레이터 초대 등의 교류를 주선해주었음. · 제이 무브먼트 부산대 앞, 모 기업 대표 사비 운영. 지원도 아낌없이. 작품도 구입해 줌. 예술가의 자립에 크게 도움이 됨. · 베를린 베타니언 레지던시 안에 시에서 운영하는 테크니션 상주하는 작업실. 베를린시에서 매입한 아파트에서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 · 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 공공 지원으로 작업실 얻을 수 있음. 기업들 빈 공간 등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음.

7차 FGI 주요 내용

주요 영역	발언 내용
창작공간 정책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작업이든 아니든, 예술인을 위한 공유작업실 같은 공간 필요함. · 캔버스 작업 후 보관장소 (습도 등). 심사 후 작품은 일정 이용료 받고 보관해주는 전문창고 필요. · 공간마다 특성, 작업에 어울리는 공간 특화/세분화 필요. · 연결고리 필요. 작업만 하다보면 교류가 없어짐. 다른 사람의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는 기회가 필요한데.. 대학교 수업을 듣는다든가, 한달에 한번씩 모임 등. 작업실 개념이 아니더라도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필요. · 단지 빈 공간이 있으니 이곳을 사용하자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부산만의 특색이 있는 입지를 고려하여 활용하기를 기대함. 가령 바다, 강, 폐건물, 역사 등. 주변을 다 고려해서 기획을 해야 함. 주변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부산만의 공간에서 영향받고 영감받는 작품을 기획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레지던시 창작 공간을 발굴해서 매핑을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업무임.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가 다른 곳에 가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지만, 타지(외국)에서 이리로 오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설치미술이라든가 등등. · 또한 레지던시 공모에 왜 나이 제한은 없어야 함. 외국의 경우 70대도 지원 가능함. 부산 전시공간 사실 많음. 카페 등. 전시공간이 있어도 교통이 불편함. 이왕이면 입지가 좋은 곳에 전시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 레지던시 내의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재료비라도 받아야 함. 초대권 문화는 사라졌는데, 공공에서 특히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무료를 당연시하는 분위기. 예술가 vs 예술교육전문가 역량 차이, 코디네이터가 필요함.

주요 영역

발언 내용

- 청년예술구독 프로그램 참여 경험 (청년 예술센터, 자갈치)- 전시 후 작품 보관 공간 어려움, 재료 등 버렸음. 작품 재 활용 못해서 아쉬웠음. 사업 후, 학교 경찰서 등 공공장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공간 돌면서 전시하면 3년 이상 전시(보관)할 수 있을 듯.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연구

발행인 이미연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연구수행 (재)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발행일 2024. 12. 31
디자인 제작 단케랩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홈페이지 www.bscf.or.kr
전화 051-745-7206~7(정책연구센터)



본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를
준수할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